

# YWCA 온라인 아카데미 OPEN



한국YWCA연합회는 2020년 7월 전국 YWCA 활동가들과 회원들에게 YWCA 목적과 가치, 운동정책에 대한 이해, 시민운동가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YWCA 온라인 아카데미를 개설하였습니다.

<목적문·역사를 통해 보는 YWCA 운동 이해>, <YWCA와 시민사회>, <YWCA 알기·운동과 운영>, <하나님의 형상, 여성 우리>, <중점운동 정책교육 탈핵·성평등·평화통일> 강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금융 지식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과 경제생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성인 대상의 금융·경제교육 강의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새로운 강의를 제공될 예정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www.ywca-edu.or.kr](http://www.ywca-edu.or.kr)

## 진행 중인 강좌

### ■ Y아카데미 이수과정

#### <1차 필수> YWCA 이해 강좌 (4강)

- 1) 수강 대상 : 전국 회원YWCA 자원·실무활동가 전원
- 2) 수강 기간 : 7월 2일(목) ~ 9월 30일(수) (3개월 간)

#### <2차 필수> 기독교여성주의 [하나님의 형상 여성, 우리]

- 1) 수강 대상 : 전국 회원YWCA 이사
- 2) 수강 기간 : 7월 2일(목) ~ 9월 30일(수) (3개월 간)

### ■ 중점운동 이수과정

#### <필수> YWCA 운동정책교육

- 1) 수강 대상 : 전국 회원YWCA 자원·실무활동가 전원
- 2) 수강 기간 : 7월 2일(목) ~ 9월 30일(수) (3개월 간)

※ 추후 회원YWCA에서도 <YWCA 온라인 아카데미> 플랫폼에 강좌를 개설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성남 031.708.2503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세종 044.865.2432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속초 033.635.3523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인천 032.424.0524	통영 055.646.2547
광명 02.895.1966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파주 031.945.5998
광양 061.762.0012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1	제주 064.711.8322	평택 031.651.7701
광주 062.609.1300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제천 043.645.2580	포항 054.274.4444
김해 055.332.6000	사천 055.833.2344	안양 031.455.2700	진주 055.755.3463	하남 031.793.7771
남양주 031.577.7762	서귀포 064.762.1400	양산 055.367.1144	진해 055.542.0020	군산 063.462.4491
남원 063.632.7002	서울 02.3705.60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논산 041.736.7393	서천 041.951.64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 한국 YWCA

2020년 7·8월호  
Jul · AUG Vol.568

### 특집 2020년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정기총회 현장  
신임 회장단/임원단 소개  
신임 공천위원·실행위원 소개  
감사 인사

### 기획 한국전쟁 70주년

#### 이슈

차별금지법안 국회 발의

#### 여성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법·정책 과제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21세기 여성들은 어떤 '이야기'를 원할까



# 2020~2021 한국YWCA 운동정책

주제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3대 운동과제

## 탈핵생명운동

## 성평등운동

## 평화·통일운동

목표

탈핵 에너지전환과  
자립 지역사회  
만들기

여성이 참여하는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평화교육과  
민간교류 확대로  
평화체제 만들기

세부  
과제

- 지자체 탈핵에너지 정책 수립
- 핵발전소 감축과 제도 마련
- 식품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

-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 여성이 주도하는 성평등한 지역사회 구축
- 성폭력과 성차별없는 사회 구축

- 평화·통일 교육과 평화 인식 확산
- 여성 평화·통일 담론과 참여 촉진
- 대북 협력 사업 기틀 마련

공통  
과제

청(소)년이  
삶의 주체로서는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 청(소)년 회원과 전문 활동가 양성
- 지역, 환경, 경제, 교육, 인권, 성평등, 평화 등 각 분야에서의 청(소)년 당사자 이슈 발굴과 활동 강화
-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과 연대 강화

# 2020.7·8 한국YWCA



### 표지이야기

7월 3일(금)부터 4일(토)까지 20명의 키다리학교 운영진 '키쌤'이 군산에서 모였다. '키쌤'들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청소년 활동에 생기를 불어넣고자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 2020년 8·9·10월 주요일정

- 8월 18일 전국사무총장협의회(1차)
- 8월 19일 전국사무총장협의회(2차)
- 8월 27일 제3차 길위의 평화포럼
- 9월 15일~16일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1차)
- 17일~18일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2차)
- 22일~23일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3차)
- 24일~25일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4차)
- 10월 9일~16일 YWCA 한라에서 백두까지 사진전
- 10월 15일 제4차 길위의 평화포럼

### 제56권 제4호 통권 568호

2020년 8월 6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 편집인 유성희

미디어소통위원회 김민주 · 김은주 · 백수경 · 이경순  
이은혜 · 이하나 · 정선경 · 조하나

편집 배정미 · 이주영 · 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퇴계로18길 77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k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6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 차

- 04 **신임회장 인사말** 담대히 그러나 겸손히 나아갑시다 | 원영희
- 05 **정기총회 기도문** 정의, 평화, 생명 사회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 차경애

### 특집 2020년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 06 ① 정기총회 현장 | 편집실
- 07 ② 신임 회장단 소개
- 08 ③ 신임 임원단 소개
- 09 ④ 신임 공천위원·실행위원 소개
- 14 ⑤ 감사 인사
- 15 **이달의 포커스** 인터뷰 :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 편집실

### 기획 한국전쟁 70주년

- 18 ① 한반도 평화체제 가능성과 남북관계 전망 | 임을출
- 20 ② 근대 기독교사를 통해 보는 통일 한반도의 기독교 역할 | 양현혜
- 22 ③ 평화협정, 왜 필요한가 | 서보혁
- 24 ④ YWCA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 최수산나

- 26 **이슈** 차별금지법안 국회 발의 | 한상희
- 28 **기후위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그린뉴딜인가 | 이윤숙
- 30 **여성**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법·정책 과제 | 나영
- 32 **미디어와 사회** 미디어 보도와 사회적 갈등 | 김수아
- 34 **청년토크** MBTI 대유행 | 대학·청년Y

- 36 **이달의 현장①** 연합회 실행위원 온보딩 프로젝트 | 이은영
- 38 **이달의 현장②** 지역에서 페미니즘하기, 가능할까? | 신하은
- 40 **이달의 현장③** 2020 온라인 아시아YWCA지역회의 | 김은영
- 41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21세기 여성들은 어떤 '이야기'를 원할까 | 오수경
- 43 **연합회 소식**
- 45 **성명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 46 **회원YWCA 소식**



원영희  
한국YWCA 연합회 회장

## 새로운 백년을 향해, 담대히 그러나 겸손히 나아갑시다!

한국YWCA 역사 98년 동안 도전이 없던 적은 단 한 해도, 어쩌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고비마다 귀한 일꾼을 세우셔서, Y를 통해 맡겨주시는 주님의 사역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시23:3)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 곁에서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을 이끄시는 주님에 앞서 가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며 행동하는 동역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힘은 담대함과 겸손함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담대히 일어납시다(사60:1). 우리YWCA의 존재 목적인 정의, 평화, 생명 운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같은 목적으로 한국에 53개,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계에 100개가 넘는 YWCA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더욱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2,500만 세계YWCA 회원을 품고, 특별히 9만 여 한국YWCA 회원을 품고 기도하며 선한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평화통일, 청(소)년, 탈핵생명, 성평등 활동 속에 그리스도 정신이 온전히 스며들어 그 빛을 제대로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러나 겸손합시다. 우리 앞에 놓인 산들이 많습시다. 한국YWCA는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건강한 조직으로서 지속가능하도록 연합회뿐 아니라 회원YWCA의 재구조화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회원Y의 지역법인화라는 오랜 과제의 해결을 드디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앞서 부속시

설 운영목적을 재정립하는 ‘부속시설신운영정책’을 결의하였습니다. 연합회는 재구조화 실행 지원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연합회의 구조변화를 위한 TF도 운영 중입니다. YWCA 역사아카이브를 구축하여 100년의 역사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한국 NGO단지(가칭) 설립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고, 명동 연합회 회관을 20년 동안 운영, 관리를 위탁하는 마스터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경험이나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겸손히 우리를 내려놓고 Y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함께 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모든 사역에 더 적극 참여합시다. 창조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YWCA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에 진지하게 참여합시다.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YWCA에는 지난 98년 동안 수도 없이 일어났고 또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종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재한 수많은 일들을 보며 두려워하기보다는, 바로 그 뒤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이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하신 하나님 뜻을 헤아리며 사역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YWCA활동가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의, 평화, 생명 사회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 차경애

한국YWCA복지사업단 이사장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YWCA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게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정지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큰 문제인 줄 모르고 우리의 과학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아 보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동·식물들도 희생시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들이 초래한 잘못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주는 교훈을 거울 삼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2020년 정기총회를 허락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에 총회가 열려야 했지만 이제라도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앞으로 2년동안 한국YWCA를 이끌어갈 공천위원, 실행위원의 인준과 명예연합위원 추대, 군산 준비회의 준회원 가입 그리고 연합회 임원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2년 후에 맞이할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기에 부족함


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에 진행될 한국YWCA 재구조화 정책과 부속시설 정책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53개 회원Y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YWCA가 변화해야 할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변화시켜주셔서 한국사회를 정의, 평화, 생명의 사회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함께 남북이 분단된 지 7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기도해오고 있는 평화통일 기도운동과 한반도 종전 평화캠페인 기도운동을 통해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져 하루 속히 우리나라의 종전이 선언되고 이 땅에 참 평화가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합회 리모델링 공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진행돼서 더 아름다운 회관이 되어 기쁘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지난 2년동안 연합회와 53개 회원Y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한영수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임원들과 공천위원 그리고 실행위원들의 노고를 축복해주시고 실무활동가들의 수고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총회의 모든 일정을 주님 손에 위탁합니다. 온라인 총회에 참석한 회원Y의 대표들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간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100주년 이후 한국YWCA 기반 다질 새 리더십 선출



신구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원영희 신임회장(좌)과 한영수 직전회장(우)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온라인 화상회의로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군산YWCA가 준회원YWCA로 가입했다.

한국YWCA연합회는 7월 30일(목) 오후 2시 온라인 화상회의 줌으로 2020년 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53개 회원YWCA 대표 103명,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실행위원, 실무활동가 등 180여 명이 온라인 총회로 모였다. 특별히 올해는 제47대 임원 선출이 예정된 해로 온라인 전자선거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투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사)한국YWCA연합회는 매해 2월 초 정기총회를 열어 전국 53개 지역 회원YWCA 임원들과 연합회 실행위원 등 대표자들이 모여 YWCA의 운동 정책을 채택하고 당해 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는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2년에 한 번씩 연합회의 회장과 제1, 제2 부회장을 투표로 선출해 왔다.

올해는 2월 초부터 급격히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총회에 대한 감염 확산 우려로 한국YWCA 역사상 초유의 정기총회 연기를 결정하고, 3월에 2020년 사업과 예산 등 사업에 관한 안건들을 서면으로 처리하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온라인 회의 플랫폼 줌에서 연합회와 53개 회원YWCA의 대표들이 사무회의의 안건인 공천위원/실행위원 인준과 명예연합위원 추대 및 군산YWCA 준회원 가입을 의결했다. 사무회의2 안건에서는 한국YWCA연합회 회장과 제1, 제2 부회장을 전자투표로 선출했다.

한국YWCA연합회 신임회장으로는 단독 후보인 원영희 제1부회장이 신임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으며, 제1부회장에는 조은영 실행위원, 제2부회장에는 이은영 실행위원이 선출되었다.

이번 회기의 임원단은 2022년 한국YWCA 100주년을 눈앞에 두고 2020년 8월부터 2022년 2월 총회까지의 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총회로 선출된 새로운 임원단과 새롭게 꾸려진 실행위원 등 자원활동가의 새로운 리더십이 실무활동가와 협력하여 한국YWCA 창립 100주년 이후 지속가능한 기여여성운동단체로서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과 실행 등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 | 제47대 | 한국YWCA연합회 신임 회장단



(왼쪽부터) 이은영 제2부회장, 원영희 회장, 조은영 제1부회장

### 회장 원영희

1973~1977 대학YWCA 회원  
1978~1979 서울YWCA 간사  
2000~2020 연합회 실행위원, 위원  
사회개발위원장  
인력개발위원장  
달해생명위원장  
인사위원장  
회원Y협력지원위원장  
부속시설조사TF위원장  
2011~2015 세계YWCA 실행이사  
2015~현재 세계YWCA 공천위원  
2003~2006 연합회 임원(제2회계)  
2014~2015 연합회 임원(제1서기)  
2016~2017 연합회 제2부회장  
2018~2020 연합회 제1부회장  
2020~현재 연합회 회장

### 제1부회장 조은영

2001 YWCA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분석 연구 책임  
2001~2006 연합회 복지사업위원  
2007~2008 연합회 복지사업위원  
2003~2011 연합회 실행위원  
2016~현재 연합회 실행위원  
2007~현재 연합회 기획위원  
인사위원  
부속시설설립운영평가단장  
돌봄과살림 대표  
복지·부속시설운영위원장  
모금행사준비위원회 위원  
다래교실 자문위원장  
2018~2020 연합회 임원(제1회계)  
2020~현재 연합회 제1부회장  
행정운영위원장

### 제2부회장 이은영

1995 제18회 세계YWCA 봉사자  
2001~2006 연합회 인력개발위원  
2003~현재 연합회 실행위원  
2007~현재 연합회 회원조직운영위원  
사회개발위원회 위원장  
기획위원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기획행정팀 팀장  
싱크머니 자문위원  
돌봄과살림위원장  
Y아카데미위원장  
지역경제교육센터장  
2009~2011 연합회 임원(제2회계)  
2014~2017 연합회 임원(제1회계)  
2020~현재 연합회 제2부회장  
사업운영위원장

제1회계 오영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겠습니다. 정의, 평화, 생명! YWCA 정신을 실천하겠습니다.

제2회계 김성이

위기와 격변의 시대에 변화와 소통을 통해 다시 한 번 새로워지려는 한국 YWCA의 노력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일의 작은 밑알이 되겠습니다.

제3회계 김은경

100년을 앞둔 YWCA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하며, 이 순간 YWCA의 일꾼으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고 친절하게, 섬기는 자로 매 순간 기도로 간구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4회계 함희경

많이 부족하고 약합니다.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주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YWCA 자매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2부회장 이은영

조직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응 등 격변의 시기에 공감과 협력, 소통으로 YWCA의 공유가치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회장 원영희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명을 지닌 YWCA의 임원으로서, 이 사명을 나눌 수많은 여성들, 특별히 더 많은 젊은 여성들과 함께, YWCA를 새로운 재미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의 터로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구조 개혁을 기도하며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제1부회장 조은영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새로운 YWCA 100년의 길을 사랑하는 YWCA 자매들과 함께 더 깊이 나아가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동행하겠습니다.

# 2020년 신입 공천위원

한국YWCA연합회



이명혜

- 1977~1986
- 1989~현재
- 1994~현재
- 2016~2017

마산YWCA 간사, 총무  
연합회 위원, 서울YWCA 위원  
연합회 실행위원, 임원, 위원장  
연합회 회장

YWCA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좋은 일꾼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수

- 1992~현재
- 2000~2009, 2011~현재
- 2018~2020.7

연합회 위원  
연합회 실행위원, 위원장  
임원, 복지사업단 이사, 후원회 이사  
연합회 회장

YWCA 사명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을 찾는 일에 책임과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YWCA



김형남

- 1984~1990, 2005~현재
- 1990~1999
- 2010~2011
- 2014~2016
- 2015~현재

전주YWCA 이사  
전주YWCA 사무총장  
전주YWCA 회장  
연합회 군산직할지부 운영위원장  
연합회 지역협력위원, 군산YWCA 지도위원

NGO로서의 YWCA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목적과 사명에 맞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경

- 1985~현재

세종YWCA 사무총장

한국YWCA 비전과 가치, 목적에 맞는 인격과 사명을 지니고 청년예수처럼 창조적 소수자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2020년 신입 실행위원

40세 이하



김 신 애

- 2017~현재 연합회 Y아카데미 위원
- 현 기독교신문 기자

한국YWCA가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여성을 향한 많은 길을 개척해온 것처럼 여성들이 부장제에 저항하고 연대를 확장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함께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엄에스더

- 2016~현재 연합회 평화통일 위원
- 현 유니시드 대표

탈북민으로서 북한에 YWCA를 세우는 꿈을 꾸며 준비하고, 통일세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YWCA 평화운동에 헌신하겠습니다.



최 선 화

- 2012 Y-틴 전국협의회회장
- 2014~현재 수원Y 청소년 지도자
- 2017 대학-청년전국협의회회장
- 2018~현재 연합회 탈핵생명 위원

YWCA가 모두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며, 청년운동과 여성운동을 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곳, 유리천장이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세 ~ 50세



곽 지 영

- 2008~2017 연합회 위원
- 2011~2017 연합회 실행위원, 위원장
- 2018~현재 연합회 실행위원, Y아카데미 위원
- 현 송실사이버대학교 교수

한국YWCA가 이 땅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헐벗은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원하고 섬기는 도구로 쓰여지는 데, 저도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41세 ~ 50세



김 은 선

- 2017~현재 연합회 돌봄과살림 위원
- 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센터장

우리 민족, 세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세상의 즐거이로써 역할을 해 온 YWCA가 우리 사회에 정의, 평화, 생명운동으로 더욱 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김 은 경

- 2006~2017 연합회 위원
- 2009~현재 연합회 실행위원, 위원장
- 2016~현재 연합회 성평등위원장
- 현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여성이 이끄는 기독교운동단체로서의 모델이 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51세 ~ 60세



박 윤 애

- 1999~2000, 2007~2017 연합회 위원
- 2018~현재 연합회 Y-틴 위원
- 현 자원봉사이음 대표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에 실천하고,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YWCA 운동이 확산되도록 그 목적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오 영 란

- 2012~2014, 2015~2017 연합회 위원, 자문위원
- 2018~현재 성평등 위원, 모금 위원, 씽크머니 자문위원
- 현 부영그룹 상무

YWCA가 사회와 소통, 공감력을 확대하고,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실천력을 배양하며, 청소년 인재육성의 장이 되도록 변화를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 2020년 신입 실행위원

51세 ~ 60세



**이 윤 지**

- 2016~현재 연합회 Y-틴 위원
- 전 음악치료사

한국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 평등한 사회, 청소년들이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한국YWCA가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헌신하고 싶습니다.



**조 은 영**

- 2001~2017 연합회 위원
- 2011~2017 YWCA 복지사업단 이사
- 2003~현재 연합회 실행위원
- 현 조우코크리에이션 대표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한 생명이자 소중한 개인으로서 충분히 충만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삶의 여건을 개선하고, 깨어 있는 의식으로 나와 남을 알고 사랑하며 그 사랑과 경험이 이 땅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61세 이상



**김 명 희**

- 2004~2017 연합회 위원
- 2006~2017 연합회 실행위원
- 2018~현재 연합회 실행위원, Y아카데미 위원
- 현 나눔교회 담임목사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 땅, 현실에서 실현되고 확장되는 데에 한국YWCA가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임**

- 1995~현재 연합회 위원
- 2000~2017 연합회 실행위원, 위원장
- 2018~현재 연합회 실행위원, 제2부회장, 탈핵생명위원장, 장학위원장, 시니어준비위원장
- 현 SCOOK청담 원장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YWCA가 정의, 평화, 생명의 세상을 이루어가는 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추천



**김 성 이**

- 2003~2006 진주YWCA 위원
- 2007~현재 진주YWCA 이사, 위원장
- 2017~2019 진주YWCA 회장
- 현 남매장학재단 사무국장

YWCA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후속세대의 양육, 국제적 문화교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신 영 화**

- 1995~2008 청주YWCA 위원, 이사, 위원장
- 2008~2012 청주YWCA 회장
- 2011~현재 아이쿱생협이사, 이사장
- 2017~현재 청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장

YWCA가 목적과 기독교 정신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도록 되돌아보고, 순수하고 지속적인이며, 감동을 줄 수 있는 운동체가 되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힘쓰겠습니다.



**유 칠 남**

- 1986 안양YWCA 창립회원 및 발기인
- 1988~1989 안양YWCA 합창단 총무
- 1990~현재 안양YWCA 이사, 위원장
- 1999~2002 안양YWCA 회장

기독교성단체로서의 영성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하여 밝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이 혜 경**

- 1985~1999 목포YWCA 이사
- 2000~2012 목포YWCA 사무총장
- 2013~현재 목포YWCA 이사, 위원장
- 2015~2018 목포YWCA 회장
- 2016 서부지역위원장
- 2019~현재 연합회 지역협력위원
- 현 사회적기업 희망지원센터 대표

YWCA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는 두 손을 통해서 YWCA 회원들이 행복해하는 그 가치가 함께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필요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조 중 남**

- 1996~현재 서울YWCA 위원
- 2000~현재 서울YWCA 이사, 위원장
- 2015~2018 서울YWCA 회장
- 2017~2018 북부지역위원장
- 현 조윤희산부인과 원장

이 땅에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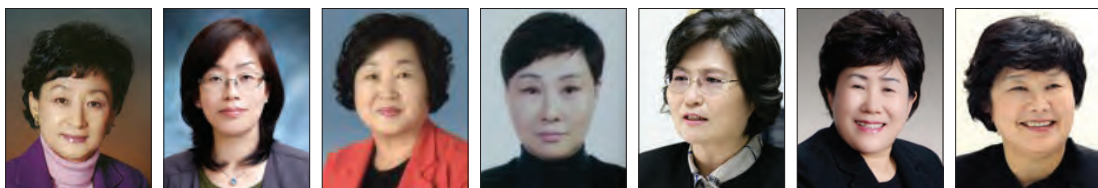
## 임기 만료되신 실행위원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김경희 김말숙 김태연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박은경  
 안수경 이명혜 이영희 하은경 한영수 박영순 정선경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라는 목적으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지난 임기 동안 애써 주신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한국YWCA는 점점 황폐해지는 이 땅에서 ‘생명의 바람’을 일으켜 ‘세상을 살리고자’ 전국 53개 회원YWCA와 함께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년·청소년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거대한 일들을 한국YWCA 실행위원님들의 헌신과 동역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실행위원님들의 YWCA를 향한 사랑과 정성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실행위원들에게 또다른 힘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100주년을 향해 가는 한국YWCA 역사의 한 장(章)을 빛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경희 김말숙 김태연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박은경



안수경 이명혜 이영희 하은경 한영수 박영순 (전문위원) 정선경 (전문위원)

## 사람과 공간의 연결로 공동체를 복원하다

한국YWCA연합회관이 ‘페이지 명동’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한국YWCA연합회는 2019년 4월 사회혁신기업 더함과 한국YWCA연합회관 및 부지를 소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10월 17일에 마스터리스(master lease)계약을 체결해 오늘에 이르렀다. 사회혁신기업 더함은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하여 공간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관의 마스터리스뿐 아니라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로 주거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부터 위스테이 별나가 입주를 시작했다. 7월 13일(화) 더함 사무실에서 양동수 대표를 만났다.

인터뷰 진행 : 배정미 연합회 국장, 이주영 부장  
 정리 : 편집실



###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으로 양분된 주거 시장 내에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라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도입한 것으로 임차인들이 설계 단계부터 입주 후 운영까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모델입니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구조에서는 건설사가 많은 자본이익을 수취해 가는 구조이다 보니, 좀 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스테이’는 더함이 사업을 주관하고 건설사는 단순 도급형태로만 참여해 건설사 이익을 줄여 임대료를 낮추고 커뮤니티 공간도 넓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위스테이’는 ‘느슨한 공동체’ 재미있는 아파트를 모토로 다양한 커뮤니티를 장려합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으로서,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나아가 경제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 보육, 임대관리, 시설관리 등 커뮤니티에 기반을 두면 새로운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어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위스테인내의 조합원들이 공동체교육을 받고, 조를 이루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변호사이신대표님께서 사회혁신기업 더함을 만들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하신  
계기/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가 늘 저에게 있는 숙제입니다.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좀 더 근원적인 사회 시스템을 바꿔내지 않으면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적 관계망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는 모습들이 더욱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소유에 대한 문제해결이 핵심적이라는 생각과 함께,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한 공동체나 커뮤니티 복원이 시급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혁신해서 자본이득들이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커뮤니티화’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 6월 연합회관 주차장 부지에 '위스테인'의**

**견본주택을 짓는 것으로, 이공간을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고, 서울Y 회관 2,3층에 SH청신호주택을 홍보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새로운 주거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인 '청신호 명동'을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YWCA회관이 '페이지 명동'으로  
재탄생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명동 지역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명동은 YWCA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 안에서 명동 지역이 갖는 역사성에 더해, 이 역사 속에서 혁신을 만들어 간 YWCA의 모습들에 매료되었습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인 YWCA가 주는 위안과 격려는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시키며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는 더함에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연합회 주차장에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을 세우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Y에서 받아주셔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획적인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위스테인' 견본주택을 시작으로, 사무

실도 서울YWCA로 옮겨지게 되었고, 더함이 위탁운영을 맡게 된 SH의 '청신호 명동'도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가들이 명동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 더함의 또 다른 비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YWCA회관이 '페이지 명동'으로 재탄생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새 장場に 새로운 페이지가 이곳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새 역사가 시작될 때 거점이 되는 공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의 시대에, 관광과 쇼핑 중심의 명동 역시 문화와 가치 중심지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합니다. 북간도 명동학교가 독립운동의 새 역사를 만들었듯이 YWCA 회관이 자리한 이곳 명동 11번지가 '시대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요량과 같은 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 시대에 대한 비전이 오랜 역사를 이어온 YWCA를 통해 보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5년도 채 안 된 신생기업인 더함의 열정과 감각이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YWCA의 통찰력이 더해지면 우리가 한국사회를 뒤집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웃음)

**명동 지역내에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대화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다양한  
자원을 모으기 위한 활동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YWCA 회관 리모델링 프로젝트 등 이 모든 것들이 명동 지역 내에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동 중심업무지구에서는 사무실이나 상점들을 기점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구역 전체를 어떻게 연결될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낼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서울시, 중구와 같이 명동 타운매니지먼트를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요, 하반기부터는 인근의 공개공지, 유희부지들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명동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



위스테인 단지 전경

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에 제안을 하여 공공의 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YWCA회관 건물이 이러한 명동의 재활성화 과정에서 '앵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실행하는 혁신가적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선한 가치를  
사회에 실현하고 모두와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느껴집니다.  
대표님의 선한 행보의 원동력을 끝으로 묻고 싶습니다.**

돌이켜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는 일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마음 한켠에 늘 빛처럼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이 축복이 그저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의도적으로 일반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소명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의(義)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주저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함께 꿈꿀 수 있는 YWCA 조직을 만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늘 이해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년의 운동 역사 속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온 YWCA와 새로운 혁신기업인 더함의 인사이트가 앞으로도 더욱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남북정상간 합의 사항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UNSCR1325 25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올해 '길위의 평화포럼'은 '평화 협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포럼단, 탈북여성들과 더불어 총 4회 열린다. 지난 7월 9일(목) '한반도 평화체제 가능성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 '제1차 길위의 평화포럼' 강의 내용을 싣는다.

### 북미관계 교착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간에 공식적으로 전쟁상태를 종식시킴으로써 법적·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의 체결로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수립된 이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전개되어 왔다. 특히 2018년부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4.27, 5.26, 9.18-20)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6.12, 2019.2.27-28), 남북미 정상간 판문점 회동(2019.6.30)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왔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2018년)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규정되었고(제3조 3항),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양측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

가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최종단계에서의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하였다.

하지만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간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북미관계의 교착은 남북관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군사적 충돌의 방아쇠 : 대북전단 살포

남북 정상 간 합의이행이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 전단지 살포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6월 9일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결 전화, 동·서해 군 통신선, 남북 정상 직통전화 등 남북 사이 모든 연락망을 단절시켰다. 같은 날 북한은 이러한 조치가 전 날의 대남사업 부서 총화회의에서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한 이후 나온 첫 단계 행동’이라

는 점도 공개했다. 6월 16일에는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의 상징적 건물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6월 17일에는 대규모의 대남 배라 살포를 예고했다. 남측 민간단체의 행위를 빌미로 북측도 대남 배라 살포와 확산기 설치 등 4.27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6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려 남북관계는 숨고르기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대북전단이 남북관계에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킨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대북전단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4년 10월 10일에 북한은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14.5mm 고사총 10여발을 발사, 일부 탄두가 우리측 지역에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남북 GP 사이에 2차 총격전도 발생한 적도 있다.

북한은 전단지 살포를 대북 적대시 정책의 표출이자, 전쟁선포 행위로 간주한다. 그만큼 전단지 문제는 북한 정권에게는 극도로 예민하고, 용납하기 힘든 문제이다. 자신들의 최고 존엄과 인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탈북단체들의 전단지 살포 행위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품고 있었던 우리에 정부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촉매제가 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 남북관계는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다


남북관계는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1년 넘게 남북관계 동력이 약화된 데 따른 결과이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은 남북관계를 통한 실리를 당분간 포기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측이 미국으로부터 대북정책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해 상당 기간 남북관계 진전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등을 보면 북한은 남북 정상 간 합의를 통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했지만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린 듯하다.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행하고,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남북정상간 합의 사항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과제이고, 어렵지만 정부가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론을 결집하는 특단의 조치도 병행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이 여론의 지지 없이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대북전단지 살포 문제 등과 관련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보다 적극적인 설득 노력, 정책 지지기반 확대 노력도 필요하다.

### 북한에 대한 전략적관용 필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대북정책의 실패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문제는 코로나19, 미국 대선, 미중갈등 등 중요한 변수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도 우리도 주변 정세의 향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놓을 필요는 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남북이 전략적으로 소통·협력할 때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미국, 중국도 자국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데 남북한이 대립과 갈등을 이어나가면 정말 우리는 가능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관용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살길도 열린다. 북한을 고립시키고 봉쇄할수록 그 피해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두 개의 길 사이에서 : 한경직과 함석헌이 물려 준 유산

## 양현혜

이화여대 기독교학부 교수



한경직

함석헌

7월 23일(목) '근대 기독교사를 통해 보는 한반도의 기독교 역할'을 주제로 제2차 길위의 평화포럼이 열렸다. 포럼 내용을 요약 정리해 싣는다.

통일 한반도를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찾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의 기독교여야 할지, 독선과 선민 의식에서 벗어나 우리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를 성찰함이 필요하다. 두 거대한 기독교 사상을 살펴보고 과거의 시대를 넘어 통일 한반도의 통찰을 얻어보자.

### 해방 직후 북한 개신교의 상황과 한경직

북한 개신교도들은 해방정국 하에서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신의주에서는 공산당의 급속한 조직화에 대항하기 위해 윤하영, 한경직 목사가 중심이 되어 1945년 9월 기독교사회민주당을 조직하고 공산당에 대항했으며, 북한 내 개신교와 정권 사이의 충돌과정에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월남하였다. 한경직 목사는 '피난민들을 위한 전도'를 목회방침으로 1945년 12월 베다니 교회를 창립하였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북한 장로교인들이 또 다시 대거 월남했고 전체 총대의원 수 188명 중 71명을 차지하며 사실상 교권세력으로 부상했다. 이렇게 월남 장로교인들은 한국 개신교의 대세가 되었으며, 급성장의 배경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의 물질 양면 지원이 있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 석사 출신인 미국통 한경직 목사였다.

### 월남 후 한경직의 활동과 사회 사상

1945년 10월에 월남한 한경직 목사는 기독교의 정치화를 강력히 주장하며 건국 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자유일 것이며 간접적으로 국가의 정신적 기초가 될 것"을 주장하며 기독교에 대한 준국교적 종교의 특혜를 요구했다. 기독교 최우월주의에 근거한 종교적 신정 정치를 이상으로 세움으로써, 기독교는 종교인 동시에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하였다.

한경직 목사는 기독교 신성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민의 기독교화'와 '대공산주의 투쟁'을 구상하였다. 제주도 4.3항쟁에는 폭력적 우익행동대인 서북청년대를 투입하며, 기독교 신정 정치의 국가 건설 신념을 기독교적 윤리를 능가하는 최종적인 윤리로 대치했다. 기독교 사회 윤리, 제도 의식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채 모든 것을 기독교인의 양적 확산의 문제로 수렴해 버리는, 이 신정 정치적 건국 이상은 전국민의 복음화와 친미=반공주의라는 축을 모든 정치적 판단의 척도로 하게 했다. 그러는 사이 그의 지도력은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예상 통합 교단에 국한되었고, 인간 존엄과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청년층을 품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청년들은 물었다. 기

독교의 사회적 역할이 교회의 안전을 확보하며 경제 개발과 반공과 친미를 주장하는 것인가. 독선적인 전투적 선교는 과연 기독교적인가 등등. 누구보다도 실망한 것은 영락교회 내의 5,6천여 명의 대학생부 청년 학생들로 이들은 대학생부를 자진 해산해 버렸다.

한국 개신교 내에 한경직 목사의 청렴과 청빈이라는 기독교적 유산은 안타깝게도 희미하지만, 교회의 양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경제 개발과 친미·반공의 '기독교 한국'을 건설한다는 그의 사회 사상을 지지하고 계승하는 흐름은 여전히 존재하다.

### 함석헌의 통일에 관한 사유


함석헌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일차적으로 '미·소의 세력 다툼'이라는 외재적인 요인으로 보았으나 미·소의 세력 다툼을 보다 근원적으로 성찰해 그 다툼의 원인을 근대 국가의 도덕적 모순 즉 개인도덕과 국가도덕의 불일치로 보았다. 도덕이란 개인의 행위를 전체와 일치시키는 데 존립한다. 그런데 함석헌에 따르면 "그 전체는 늘 고정된 전체가 아니라 자꾸 자라가는 전체"로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 열리는 것이며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체에도 역사가 있는 것이다.

함석헌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전체가 자라온 역사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이제는 개인이 전체 인류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실현하려 하는 시대로, 국가는 이제 낡은 것이 되었다는 것이 그의 역사인식이었다. 함석헌은 한반도 분단이 낡은 국가주의의 최종점인 미·소의 경쟁주의와 폭력주의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함석헌은 한반도의 통일은 인류 전체주의라는 새 시대를 개방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이 미·소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주의의 모순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그 극복 역시 근대 국가 체제를 극복함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즉 함석헌은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을 '국민국가'에서 '인류 전체'로 전환되는 거대한 세계사적 전환과 맞물려 있는 사건

으로 보았던 것이다.

한편 분단과 통일을 바라보던 함석헌의 사유는 외재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내재적인 측면에서 성찰하는 것이었다. 한민족의 자기상실과 자기망각이 다른 모든 현실적 수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한 민족이 자기의 종교와 철학이 없다는 것은 '국민적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적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참된 의미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나라가 공동의 이상에 의해 결속된 공동체가 아니면 어떤 당파의 나라로 전락하고 만다. 남한은 자본주의를, 북한은 공산주의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특정 당파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사사로운 권력 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시대가 국가주의를 탈각하여 전체인 하나, 즉 인류적 전체성을 개방해 가는 시대라고 본 함석헌은 국가주의를 초극할 주체가 다름 아닌 민족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민족은 '자기의식'을 가진 인격이고 주체이기 때문이다. 전체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주체의 자기의식에는 사명의 자각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자기의 할 일 곧 자기의 역사적 사명의 자각을 의미한다. 절대자를 향한 수직적 상승운동(종교)을 통해 자신을 변혁시키고, 그것을 현실의 역사에서 인류적 하나됨을 형성해 가는 수평운동(정치)을 통해 역사적 사명을 실현해갈 수 있다고 보았다.

한민족의 분단은 한편에서는 한국인의 책임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사적 필연이다. 오늘날의 시대는 전체가 자라 종래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시대이다. 그런데 기존의 알껍질이 갈라지고 깨지는 장소는 국가주의의 폭력과 경쟁이 초래한 분열적인 힘이 가장 크게 작동한 곳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고통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난이 집중하는 땅인 한반도는 따라서 고난의 수동성에 연대하는 사랑을 통해 참된 전체를 개방하려는 부름이 세계 그 어느 곳에서 보다 절박성을 띤다. 한민족의 세계사적 소명은 이 부름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다. 

# 평화협정, 여성평화운동이 이끌어갈 살림의 길

##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지난 7월 27일은 한국전쟁의 포연이 멈춘 지 67돌이 되는 날이었다. 전쟁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정전협정이고, 전쟁 중단을 포함하면서도 평화우호관계와 평화관리 방법 등을 담은 것이 평화협정이다.

한반도에서는 3년여 간의 전쟁을 중단하는데 교전집단들의 군 최고책임자들 사이에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평화협정은 아직까지 체결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정전체제 하에서 한반도 구성원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7월 27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전협정 기념행사에서 “우리의 ... 핵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며 ‘핵보유국’을 자처했다. 그동안 북한은 핵개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면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즉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은 한국전쟁의 완전 종식을 포함하지만, 위와 같은 거대 현안들이 함께 얽혀있어 체결이 쉽지 않다.

북한의 핵억제력 강화 및 조건부 비핵화 입장에 맞서 한국은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정책의 보호를 받으면서 방위력을 증강하고, 다른 한편 북한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추진해왔다. 2007년 2차 남북정상선언과 2018년 판문점, 평양 공동선언 등에서 남북 정상은 평화체

제를 구축한다는 데 공감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북미 대립으로 인해 평화체제는 논의에서 이행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평화협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우호협력관계를 추진한다는 공식 약속이자 그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쟁은 물론 정전체제와 같은 불안한 평화를 안정적인 평화로 전환시키는 정치적·법적 합의가 바로 평화협정이다. 물론 평화협정은 정치적 합의와 법적 합의에 따라 협정(agreement)과 조약(treaty)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평화협정은 종전선언을 포함하기도 하고, 협정 체결 이전에 종전선언을 먼저 채택할 수도 있다. 또 평화협정은 대부분 분쟁 종식, 관계정상화, 영토문제, 전쟁 피해문제 등이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분쟁의 성격에 따라 협정 내용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평화협정은 보통 분쟁집단 최고지도자들 사이에 채택되지만 협정 체결 여부와 그 내용은 여론과 민간단체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민(民)의 평화협정’ 체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럼 평화체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평화체제는 분쟁 종식 이후 분쟁 당사자들이 다양한 교류협력을 전개하며 공존공영의 관계를 만들고 지속해나가는 커다란 행동양식을 말한다. 이때 평화협정은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

한 정치적·법적 합의이다.

### 평화체제 구성 요소

많은 사례들에서 보듯이 평화협정은 필요에 따라 여러 번 채택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합의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럼 평화체제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로는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적대의식의 화해의식으로의 전환, 인도적 지원과 협력,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평화문화·교육 등 다양하다. 여기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은 정부 차원의 정책과제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민간이 함께 할 과제들이다. 평화체제는 정치, 경제, 사회, 이념 등 여러 측면에서, 민과 관이 협력하며 평화를 뿌리내리고 키워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평화체제는 이렇게 법·제도와 같은 명시적 요소들과 의식·관행과 같은 묵시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2019년부터 5년간 국방비를 270조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연평균 7.5% 인상된 것으로서, 북핵문제의 장기화에 따른 군사전략 개선과 병사 봉급 인상 등이 주요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국방비 인상폭은 교육비 인상폭의 2.6배(2019년 기준)인데, 이는 평화체제 수립이 인간다운 삶의 필수조건임을 말해준다. 전쟁 위협이 있는데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차별을 정당화해온 군사문화 없는 참 민주사회에서 살아가려는 뜻 여성들이 평화운동을 선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느리지만 꾸준히 복지과 인권이 증진되어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한반도 문제를 민족, 이념, 통일, 남섬 중심의 관점에서 세계, 삶, 평화, 젠더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성평화운동은 안보 평화정책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를 근거로 삼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도도하게 발전해온 민주·인권·여성운동의 발전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다. 이제 여성평화운동은 주한미군의 성착취 및 환경오염 규탄은 물론 압박이 아닌 대화를 통한 비핵화 달성, 평화협

정 체결, 부당한 방위비 인상 반대, 통일외교안보정책에서 문민통제 강화, 국회의원 및 정부 고위직에 여성 할당제 등을 주장하며 제도권에 강한 압박을 주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이 평화체제 수립 운동으로 수렴된다.

### 평화적 전환을 확립해나가는 단계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평화체제는 중단된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뢰를 쌓아가는 ‘평화적 전환’ 단계와 본격적인 평화구축(peacebuilding) 단계로 이루어진다. 평화협정은 이 평화적 전환단계를 확립하고, 그 단계와 평화구축을 연결하는 가교이다. 평화협정 체결 운동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동시에 분쟁의 평화적 전환을 착실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접근으로만 할 경우 평화구축이 부실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정부 차원의 정책결정자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감시와 비판이 있을 때 가능하다.

현재 한반도는 분쟁의 평화적 전환을 확립해나가는 단계에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비핵평화 협상을 재개하여 비핵화-안전보장-남북·북미관계 개선을 함께 추진할 틀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미국 대선까지 협상이 본격화되기 어렵다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 혹은 축소, 남북·북미 간 실무접촉,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평화협정에 앞서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한다는 공식 합의(일명 종전선언)를 하는 것도 추진할 만하다. 사실 남북은 몇 차례 정상회담 합의에서 종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어, 북한과 미국이 (거기에 한국이 함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에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설 수 있고, 긴장 조성이나 상대를 자극할 군사비 과대 증액이나 군사행동을 중단시키는 일에 연대해나갈 수 있다. 사실 평화운동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한다는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살림의 운동이다. 존재론적으로 여성, 어머니는 평화운동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여성평화운동이 포용적인 지도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 YWCA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시작하다

최수산나  
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한국YWCA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인 지난 7월27일, 330개 종교·시민사회 단체, 18개 국제 파트너와 함께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을 발족하고 한반도 평화 선언(Korea Peace Appeal)에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요청하는 행동을 시작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식하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행동에 전 세계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는 전쟁도 없고 평화도 없는 긴장 관계 속의 정전체제를 유지해왔다. 전 범국가인 일본 대신 분단된 한반도는 민족의 분단선, 동아시아와 세계의 분단선이 되었고, 기이한 정전체제는 냉전이 멈췄지만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속되었다. 결국 한반도는 안정과 불안의 줄타기 속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을 겪어야만 했다.

정전협정은 조선인민군과 중국 인민의용군, 그리고 자유진영을 대표한 유엔군사령부, 이 3개국에 의해 체결되었다. 현재에도 중국과 북한은 유엔과 정전상태에 놓여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가입국이 되었고,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까지 하다. 모순되게도, 유엔 가입국들이 유엔과 정전 상태에 놓여있게 된 셈이다. 당시 전쟁의 실질적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은 유엔이 남한 안전을 보장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서명했다. 이는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국제법적 당사자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전협정은 원래 3개월 안에 최종적 평화적 해결을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지만 평화협정은 논의되지 못했다. 또한

70년 동안 중국과 북한의 유엔가입, 미·중 수교, 한·중 수교, 6자 회담 등 여러 계기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지속되어왔다. 냉전 체제가 끝나고 세계 패권 구도가 변화하던 시기에도 남북 정부 차원의 한반도 종전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했다.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체제는, 평화협정을 뛰어넘어 의식과 질서, 문화와 모든 전반 체계에서의 평화적 관계를 통한 평화적 삶을 위한 요건을 말한다. 남북은 상호 인정과 평화적 통일 한반도를 위한 선언을 체결했다. 2000년 6.15 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의 초기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선언들은 강대국들의 이익에 막혀 현재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답다운 방식의 선언들의 한계를, 이제는 시민의 역동을 통해 평화협정선언을 이끌어내야 할 때이다.

## 민(民)이 주체가 되는 평화운동

한반도 평화운동의 중심점은 늘 민(民)이었다. 101년 전 3.1 운동이 그러했고, 최근 촛불혁명이 그러했다. 더욱이 평화통일운동은 1980년대부터 YWCA를 비롯한 에큐메니칼 운동,



그리고 기독교 운동의 힘이 크게 작용해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YMCA, YWCA를 비롯하여 세계교회들과 함께 2013년 부터 시작한 한반도평화협정캠페인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2020년 현재 민(民)의 평화협정 논의로 이어졌으며,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으로 제안되었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은 정부 당국의 협상에만 맡겨두지 않고 시민이 직접 나서서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시민의 힘으로 국제 여론을 움직여 난관에 부딪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6.25가 아닌 6월 24일, 본 캠페인 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한 달간의 조직 구성을 통해 정전협정기념일인 7월 27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발족일에는 서울·경기뿐 아니라, 각 지역들과 국제 단체들도 협력하여 총 350개의 기구들이 발족에 뜻을 같이 하였으며, 현재 참여단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캠페인의 슬로건은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이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올해부터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주요 활동 내용은, 시민사회 공동의 요구를 담은 ‘한반도 평화 선언(Korea Peace Appeal)’에 전 세계 1억인 서명과 각계 지지 선언을 모아내고, 남·북·미·중 등 한국전쟁 관련국과 유엔에 전달하여,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합의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 이 한반도 평화 선언(Korea Peace Appeal)은 4가지로 구성된다. ①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②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 ③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 ④ 군비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전과 환경에 투자하자.

국제적인 평화선언 서명운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50년 스톡홀름 호소문(Stockholm Appeal)은, 핵무기 절대 금지, 핵무기의 엄중한 국제관리, 먼저 사용하는 정부를 전범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80개국의 찬동을 얻었고, 서명운동에는 전 세계 5억 인구가 동참했다. 베를린 호소

문(Berlin Appeal)은, 세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소·영·프·중의 5대 강국 간에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1951년 6억 인구가 서명에 참가했다. 믿기지 않을 만큼의 거국적 참여가 가능했다는 것은 그만큼 핵무기 사용의 참담한 결과를 목도했다는 것, 또 전쟁을 멈추자는 시민의 의지가 강렬했다는 당시 상황들을 알려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 YWCA 릴레이평화기도운동과 피스챌린지

한국YWCA는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 캠페인을 위해, 올해 1년차에는 연합회와 53개 회원YWCA가 55주간(2020.7.27-2021.8.14) 동안 릴레이평화기도운동을 통해 매일 정오 평화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차 서명 집중 기간(2020.7.27-9.26, 2개월)에 3명 이상에게 전달하는 피스 챌린지(Peace Challenge)를 진행 중이다. 각 회원YWCA가 서명 목표수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서명 시에는 소속YWCA 표기하도록 하여 목표 도달수를 파악하게 된다. 이후 금요평화캠페인, 각계각층 여성평화선언, 지속적 평화교육, 지자체 및 정부 관련 활동 등을 통해 서명 목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한반도의 끝나지 않은 전쟁은 한반도 내부의 갈등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분쟁과 긴장으로 이어져왔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을 용납하지 말자. 그동안 북은 ‘악의 축’으로 보았던 적대적인 관점을 버리고, 한반도를 ‘평화의 축’으로 만들어가는 민의 행동을 용기있게 이어갈 것을 호소한다.



서명 홈페이지  
<https://endthekoreanwar.net/>

서명 시, YWCA를 포함한 문구(예시, 'YWCA 피스챌린지' 혹은 'YWCA와 함께 평화를 염원합니다' 등)를 마지막 라인 <한마디>에 꼭 적어주세요~

#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대적 소명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6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김경호 선임기자, 한겨레)

## 6월 29일 차별금지법안 국회에 발의되어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가? 지난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못했던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제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차별금지법은 문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한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 사회의 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기본법이기도 하다. 나와 다르게 생겨거나 다르게 살고 생각하기에 그를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반목과 억압의 현실에 뛰어 들어, 서로 다르기에 서로의 삶이 존엄하며 가치 있게 되는 것임을 모두에게 선언한다.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통하여 내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 삶의 가치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포용하고 수용하는 통합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차별 없는 세상이 곧 평등한 세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이 있음으로써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법의 세계에서 평등은 차별과 직결된다. 만약 같은 데도 다르게 다루거나 다른 데도 같게 다루면 그것은 부정의한 것이 된다.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

하는 것이 평등의 기본원칙이다. 예컨대, 세계인권선언이나 우리 헌법은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며 가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간다. 평등을 핑계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생각, 하나의 취향만 강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다른 만큼 다른 생각, 다른 취향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것이 평등의 본래적 모습이다. “다른 만큼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 삶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의미에서의 평등인 것이다. 이를 우리는 <합리적 차별>이라고 하며 평등 혹은 정의의 핵심내용으로 삼는다.

## 합리적 차별과 자의적 차별

이 합리적 차별은 달리 취급하는 이유가 설명가능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이 직원에 위하여 회사가 확대기나 점자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거나, 목사님을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 중에서만 선발하는 것, 혹은 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물론 성중립적 화장실 설치도 필요하다)은, 비록 누군가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이거나 사회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한다. 그래서 그것은 합리적 차별이며 차별금지법도 권장하는 평등한 조치가 된다.

반면, 다르지도 않은 데 같이 취급하는 경우, 혹은 서로 다른데 그 다름을 부정하면서 똑같이 취급하는 경우는 잘못된 차별이다. 이를 우리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한다.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은 바로 이 자의적 차별이다.

예컨대, 10여 년 전 「미네르바」라는 경제비평가가 있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판단과 평론에 동조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고졸자임이 밝혀지면서 ‘가짜 미네르바’ 논쟁이 일어났다. 그가 쓴 글의 진정성이 학력 문제 하나 때문에 부정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마치 홍석천이 만든 음식을 두고 그가 동성애자이기에 맛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식이다. 이런 사태가 자의적 차별이다.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 자신의 주관적인 취향에 따라 맘대로 잣대를 갖다 대어 이루어지는 차별인 것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이런 세세한 일상영역은 상식에 맡겨 둘 뿐 별도로 규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차별이 가장 자주 일어나고 생활침해의 정도도 중대한 네 개의 차별금지영역만을 선정하여 그 영역에서의 자의적 차별만 금지한다. 즉, 직업의 자유와 함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이라는 인권에 필수적인 ‘고용의 영역’, 인격형성과 사회생활수단의 획득을 위한 ‘교육영역’, 일상생활에 절실한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의 영역’, 그리고 이 복지국가의 시대에 무엇보다 절실한 ‘행정서비스의 영역’ 등에 대해서만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한다.

그래서 일부에서 과장하듯,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나 동성애에 부정적인 내용의 방송을 송출하는 문제 등과 같은 것은 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것은 방송콘텐츠의 “(제작)공급·이용”에서의 차별이다. 방송콘텐츠의 내용은 일단 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영역에서 23개(정의당안) 또는 21개(국가인권위 시안)로 열거되는 차별금지사유에 의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차별대우의 목적이 정당하고, 차별의 기준과 방법이 그 목

적달성을 위해 합리적이며,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치고 있으며, 차별로 인해 얻는 이익이 차별당하는 설움(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그 차별은 합리적 차별로서 정당한 것이 된다.

## 윤리와 상식에 따라 차별 없는 세상 살아갈 수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은 되려 역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별금지 사유가 스무 개가 넘어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이 침해될 것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너무도 취약하고 또 무성의하다. 우리 중에 형법 상의 범죄가 몇 개나 되는지 세어 가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냥 일반상식과 정의관념에 따라 살면 그해 형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와 다른 삶을 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나와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윤리에 속하며, 대부분 그런 윤리와 상식에 따라 차별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

더구나 이미 우리 법체계는 억울한 자가 없도록, 부당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수한 법규범과 법절차 그리고 법이론과 판례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엄중히 구분되고, 정교분리의 국가에서 국가가 종교의 자유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와 종교가 정치나 입법의 과정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는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된다. 최근의 법이론동향이나 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동향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을 굳이 외면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일 따름이라는 점이다. 그 다른 점이 열등함이나 나쁨의 표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이 당연한 상식을 다룬다. 편견과 차별 앞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다른 아닌 우리의 이웃임을 선언함으로써,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그린뉴딜인가

**이윤숙**  
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지금 우리는 명백한 기후위기의 산물인 코로나 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들, 이를테면 동토의 시베리아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과 계속되는 산불들, 중국과 일본에 쏟아진 대홍수로 인한 어마어마한 참사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껴 가지 못한 태풍과 길고 긴 장마들은 기후위기의 현실이 언제 어떻게 우리 삶에 재난을 몰고 올지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이렇게 코앞에 닥쳐왔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움직임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다.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방역모범국가이지만,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 1위, 기후변화대응지수 61개국 중 58위,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 끝에서 두 번째를 자랑하는 '기후악당' 국가이다.

그런 아쉽고도 답답한 상황 속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핵심 축으로,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58.2조원, 그린뉴딜 73.4조원, 안전망 강화 28.4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어내겠다고 한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로 주요사업이 되었다.

그런데 발표된 그린뉴딜 계획을 꼼꼼히 들여다보니 그 기대와 반가움은 곧 실망과 아쉬움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과 절박성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목표로 한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 '회색' 뉴딜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 그린뉴딜이란 무엇인가

'그린뉴딜(Green New Deal)'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사회에 급히 떠오른 개념이다.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1933년 미국에서 시행된 뉴딜 정책에 '그린'을 붙인 것으로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29년 발생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뉴딜 정책처럼,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린뉴딜이 한국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2018년 인천에서 열린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1.5℃ 특별보고서>의 발표이다. 이에 따르면 1.5℃ 기온 상승을 막아야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지금의 배출량에서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 순 제로를 달성해야만 한다. 이후 '1.5℃ 기온 상승 억제'와 '탄소배출 제로'는 기후위기 상황이 당면한 매우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듯, 올해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이 그린뉴딜을 주요한 공약으로 삼기도 하였다.



국제환경단체들이 6월 22일 한국 정부의 해외석탄투자 계획을 비판하면서 미 워싱턴포스트에 게재한 전면광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미 '그린뉴딜'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주요공약으로 쟁점이 되었고 작년엔 미국에서 '그린뉴딜 하원 결의안'이 의결되었다. 또한 작년에 새롭게 구성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급부상한 '그린뉴딜'은 그것을 발표하고 실행하는 나라와 각 주체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3가지 공통의 핵심원칙을 가진다. 기후위기 대응(Climate), 일자리 창출(Jobs), 불평등 해소(Equity)가 바로 그것이다.

## 그린 없고 평등 없는 회색 뉴딜

이런 3가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의 그린뉴딜 계획을 보면, 이것이 과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맞는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오히려 두드러지는 것은 이른바 친환경 사업, 스마트 사업 등으로 표현되는 '경기부양'과 '기업들의 이익'이다.

우선,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된 비판은 이 계획이 기후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하면서 그린뉴딜의 추진 방향으로 '인프라·에너지 녹색 전환 + 녹색산업 혁신 →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25년까지 73.4조(국비42.7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핵심적으로 '탄소 중립(Net-Zero) 사회 지향'이라는 선언 외에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이 없다. 세계적 상황에 한참 모자란 기존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배출 제로를 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탈석탄 로드맵 등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방안이 부재한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사회경제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기후위기 사태를 불러온 근본적인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성장 우선 시스템을 어떻게 바



그린뉴딜의 핵심 3원칙 (출처: 시에라 클럽)

꾸 것인지를, 예컨대 내연기관 차량 생산 축소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철폐에 대한 계획 없이 그린경제란 이름으로 친환경 사업들의 육성계획만 가득 차 있다.

또 한 가지 실망스러운 점은, 그린뉴딜의 핵심원칙인 '불평등의 해소'에 대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린뉴딜 정책은 준비과정부터 시민들의 참여 없이 관료와 엘리트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연속해서 주최한 그린뉴딜 토론회에 노동자, 농민, 여성 등 다양한 시민 주체들은 초대받지 못했고, 대신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대기업 인사들이 주로 참여했다. 국민보고회에서도 결국 돋보인 것은 전기차를 소개하는 재벌기업들이었다. 기후위기로 심각한 변화와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예상되는 다양한 주체들, 예컨대 농업, 먹거리와 같은 기후위기 시대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의 목소리들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 6월 해외의 환경단체들이 미 워싱턴포스트지에 '문 대통령님, 이것이 한국이 생각하는 그린뉴딜의 모습입니까?'라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여전히 외국의 석탄화력 발전소에 투자하는 한국의 모습을 비판하였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그린뉴딜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모순을 고스란히 지적해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구체적인 목표가 없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회색뉴딜에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 언제나 결론은 그렇듯이 우리에게 시간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 박종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관련 법의 개정 시한이 이제 불과 5개월 여 남았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관련 조항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선 지금까지 임신 중지를 여성이나 이를 도운 의료인 등을 처벌해 왔던 근거 조항들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임신중지에 관한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며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국가는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남은 시간 동안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개정 법률안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법적 처벌은 임신중지율을 낮추는 데에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여성들을 더 위협하고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갈 뿐이라는 사실이 이미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의 통계를 통해 증명되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남은 5개월 여의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은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와 함께 성교육, 성건강,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 등 제반의 관련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

하게, 차별이나 낙인 없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의료적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정책 과제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의 의미

앞에서도 강조했듯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 당사자 스스로가 결정한 임신중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일각에서는 처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임신 12-14주, 이후 22주 혹은 24주까지, 그리고 그 이후 시기 정도로 임신 시기를 구분하여 초기에는 누구나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제한적인 조건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할 뿐이다. 한국보다 먼저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여러 나라들의 경우 30~40년 전에 이러한 방식으로 법적 제약 두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제약 조건이 효용이 없을뿐더러 당사자에게 더 불평등하고 열악한 상황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제약들을 없애고 있는 추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95.3%는 임신 12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시기는 임신 6주 차 정도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건강에 미칠 영향과 태아의 성장을 고려하여 여건이 된다면 누구나 되도록 이른 시기에 임신중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 개정의 중요한 방향은 ‘언제부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가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어떤 시기에, 무엇을 보장할 것이냐’가 되어야 한다. 초기 임신중지일수록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모든 방법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보험 적용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만을 하게 될 경우의 지원 사항이나 고려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상담의 질을 높이고 이에 개입하는 의료 전문인의 기준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임신 기간에 따른 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할수록 입증 조건이 많아지고, 성폭력이든 사회경제적 사유이든 이를 입증하는 것은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여 오히려 임신중지 시기를 늦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시기, 어떤 이유에서라도 처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임신중지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 시기든 임신중지의 필요성에 대한 여성의 진술과 요청을 최우선적 기준으로 하여 의료적 지원 방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 유산유도 약물의 승인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한편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유산유도제 도입이 시급하다. 유산유도제인 미페프리스톤은 이미 전 세계 67개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하여 사용되고 있고, 2005년에는 WHO에서 필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더 이상 여성들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약을 개별적으로 복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식적인 의료 체계를 통해서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보건 의료인들이 임신중지에 관한 최신의 의학 정보와 사전/사후 건강 관리, 정보제공과 상담에 관한 가이드를 꾸준히 향상시키고 공유할 수 있는 보건 의료 환경을 마

련해야 한다. 각 지역에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 등 관련 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피임과 임신중지 또한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를 필수 공공의료 행위로 인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합법적인 임신중지가 가능한 34개국에서 정부나 공공기관 재원, 건강보험 재원으로 보험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등의 경우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피임과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적용은 비용으로 인한 접근성의 문제를 해소해 줌으로써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합병증이나 모성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 안전하고 평등한 보건의료, 사회 여건 만들기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이주민/난민, 장애인 등 정보와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 제공,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정책과 제반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형법상의 ‘낙태죄’를 통해 임신중지 처벌을 명시하는 한편 모자보건법 14조를 통해서도 장애인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임신중지는 법적으로 허용해왔다. 명분은 임신중지의 제한적 허용 사유였지만, 이는 사실상 장애나 질병이 있는 이들의 출산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해 온 것이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비장애인 여성, 청소년 여성 등은 처벌이 두려워 위협한 조건에 내몰렸고 장애인 여성은 오히려 “정말 출산을 할 거냐”는 압박 속에 때로는 강제 불임이나 유산 시술까지 받아야 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의 선별적 처벌-허용 구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평등이다.

이제는 누구나 평등하게, 폭력이나 낙인 없이 성에 관한 정보와 교육을 받고, 관계를 맺으며,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 모든 영역에서 의료적,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시기이다. 그 시작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 미디어 보도와 사회적 갈등

김수아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언론정보학과 부교수

## 차별금지법과 SNS 미디어 환경

지난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발의하였으며, 6월 30일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의 입법 추진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법안이 발의된 후, “이제 동성애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면 감옥에 간다”라는 말이 SNS를 통해 공유되기도 하고,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해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을 반대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지난 6차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시안 설명자료에서 미리 33개의 질문에 답변을 한 바 있다. 또한, 해당 주장들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이 법안은 개인의 표현을 처벌하는 법안이 아니며, 법안이 정의하는 차별의 의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이고, 이 법의 적용 범위가 고용, 재화구입 및 시설 이용, 교육, 행정서비스 등 생존과 직결되는 4가지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하지만 SNS가 보편화된 현대의 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의견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인지적 편향 구조에 빠져 있기 쉽고, 이에 따라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표현과 의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나아가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사무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신촌역에 게시한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에 존재한다”는 내용의 광고물을 훼손하는 등, 오프라인의 세계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오프라인 사건이 미치는 해악은 생각보다 큰데, 월드론(Waldron)은 이러한 사회적 혐오의 표현이 소수자들이 이 사회에서 자신의 존엄이 존중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sup>1)</sup>

## 언론이 갈등을 보도 소재로 삼을 때 갈등 증폭시켜

사실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님에도, 이러한 강력한 반대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언론 보도나 SNS를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환경의 책임이 있다. 물론 다수 언론이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하여 사실을 알린 것은 매우 중요한 언론의 공적 기능 수행이었다. 하지만 언론은 흔히 갈등을 보도 소재로 삼을 때, 사회적 갈등을 증대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고, 이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관련해서, 소위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신문들이 취하는 태도가 여전히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종교계의 반대를 부각하거나, 정치적 정당, 대통령과 정당 등을 대

립 구도에 놓고 세력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형식으로 기사 제목이나 본문을 구성하는 것이다.

미디어가 갈등을 보도할 때, 갈등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갈등을 야기한 측에 잘못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up>2)</sup> 미디어 보도가 파편화된 갈등의 특정한 양상만 부각할 때, 전체 이슈를 해당 갈등으로만 환원하여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어떻게 행사되며, 어떤 소수자들이 이로 인한 사회적 억압 상황에 놓여있는가를 차분하게 따져 보아야 할 이때, 일부 종교계의 반대에만 주목하는 보도들은 대립 관계를 부각시켜 해당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시끄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편가르기 게임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사안을 이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은 선택적 미디어 소비가 가능하며, 뉴스 그 자체보다는 그 뉴스를 누가 자신에게 전달해주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정보를 전달해준 사람을 믿으면 그 정보 역시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관심 있어 할 만한 정보만을 추천해 점차로 주변에 같은 목소리만 존재하게 되는, 다른 의견에 접촉하기 어렵게 되는 ‘필터 버블’ 현상이 생긴다.<sup>3)</sup>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우리 사회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숙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 타자의 상황에 대한 상상력이 요구된다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관련한 논의는 우리 사회가 누구를 차별하고 있는지, 무엇이 차별인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감수성은 매우 낮은 편인데, COVID-19 경험을 계기로 사회적 차별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4월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이러한 점에서 상징적이다. 우리가 차별에 대해 잘 모르는 것

은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를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인데, COVID-19 상황이 이러한 상태의 균열을 만들었던 셈이다.

이 세계가 기울어져 있는지, 평평한지는 이 세계 밖으로 나와서 바라보거나 혹은 타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지혜가 강조한 바이다.<sup>4)</sup>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차별인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교육 환경에서는 타자의 상황에 대한 상상력을 키울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탓이다.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 상에서 혐오표현이 자연스럽게 유통되는 것, 차별인지 인지하지 못하면서 하는 말들이 공적 공간에서 전혀 제지받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갈등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구조적 차별이 어떤 것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 혐오표현이 혐오로 인지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혐오표현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소수자들은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끼고 해당 공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내용은 사실상 단순하다.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혐오와 구조적 불평등을 재사유하게 하고,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평등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법이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둘러싼 갈등은 사회적 혐오를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 내버려 두려고 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갈등, 차별이 현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이기 때문에, 이 갈등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편가르기 게임이고 특정 정당의 지지자와 관련된 주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 역량에 대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 차별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무엇이 평등한 사회인지에 대한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284-315.  
3) Pariser, Eli.(2011). <생각 조종자들>. 이현숙, 이정태 역. 서울: 시공사.  
4) 김지혜(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서울: 창비.

1) Waldron, J.(2017).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홍성수, 이소영 역, 서울: 이후.

# MBTI 대유행

## 자신을 알고 상대방과 새롭게 연결

대학·청년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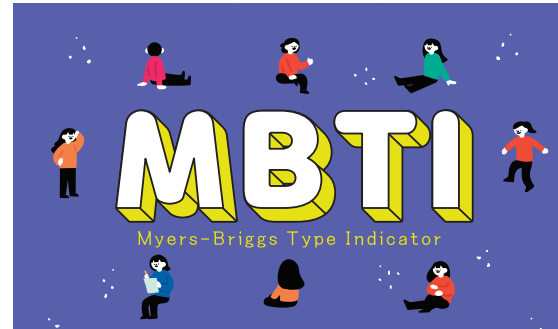
마이어스(Myers)와 브릭스(Briggs)가 융(Jung)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유형검사인 MBTI 테스트가 \*MZ세대(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 이후 태어난 Z세대를 합친 용어)에서 대유행이다. 크게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판단(J)-인식(P) 등 4가지 축을 기준으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이 테스트는 자기소개를 할 때, 취향을 고를 때, 직업추천, 상황별 성향 등 온갖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도 자사 브랜드 제품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젊은 세대는 나를 알고 싶은 욕구가 높다'는 분석으로 설명하기 부족한 MBTI 대유행, 왜 MZ세대에 유행처럼 퍼진 것일까? 청년토크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나는 MBTI가 뭐야?

- 빨** 요즘 MBTI가 유행인것 같애. 초등학교 때부터 검사해 왔던 것 같은데
- 노** 맞아. 나도 예전에 했던 것 같아. 근데 요즘 트렌드라 해서 다시 해봤더니 결과가 다르더라구. 성격이 변했나봐.
- 초** 근데 테스트도 테스트지만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짤<sup>1)</sup>로 돌아다니는 풀이가 더 재밌는 것 같아.
- 주** MBTI 성격유형별 연애 궁합, 일 궁합 이런 것도 생기고, 요즘 기업 광고들 보면 MBTI 유형에 맞춰 제품 추천해주는데, 웬지 사야만 할 것 같아서 사버렸어.
- 초** 예능에서도 MBTI 이야기를 하더라고. MBTI 성격별 예민한 부분, 좋아하는 분위기 정확하진 않더라도, 뭔가 딱 맞는 것 같더라.
- 빨** 조금 어색한 사이인데 MBTI가 뭔지 묻는 것으로 시작하면 이야기 분위기가 편안하게 풀리더라고. 대화의 '노크' 같아. '똑똑똑, 대화 걸어도 되나요?' ㅎㅎ
- 노** 맞아. 할 말 없을 때 다시 말을 이어주는 마법의 질문, '너네는 MBTI가 뭐야?'

###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 빨** 나는 ENFP야. 풀이 중에는 이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 '신데렐라가 ENFP였다면, 나오다가 구두 두 짝 다 잃어버림'
- 주** 나는 ESTP인데 연애 능력치 테스트에서 나는 '브레이크 고장난 연애직진리'라고 나왔어. 내 성격 풀이만 있는 게 아니라 나랑 환상/환상의 케미<sup>2)</sup>도 같이 소개해주는 것이 더 재밌어. 이게 소개팅 어플인 글램에서 만든 건데, 광고인 거 알면서 진짜 잘 광고 잘 만들었던 생각 들더라. 난 어플 다운받았어.
- 노** 난 INTP 논리적인 사색가래. 빌게이츠랑 아인슈타인이랑 같은 유형이야. 위인, 연예인, 해외유명인사의 MBTI가 알고 보니 나랑 같았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괜히 우쭐하기도 하고.
- 초** 'MBTI유형별 마음의 문'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나는 INTJ라 용이 지키는 철용성이지만 출입은 별 규칙 없이 의외로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유쾌하게 풀이해주니까 좋더라.



- 빨** 너네들 이야기만 들어봐도 우리 세대에 MBTI가 유행인 게 '나'는 중요하고, '나를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것만이 다가 아닌 것 같아.
- 초** 맞아. 나 자신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애인, 친구, 직장동료를 이해해보려고 그들의 유형 설명을 더 열심히 읽게 되더라고.
- 노** 내 성격도 말해주고, 상대 성격도 알고, 서로 무례하지 않게 행동하려고 MBTI 결과를 활용하기도 해.

### 심리테스트를 하는 심리

- 노** 사실 모든 이유를 코로나19로 들고 싶진 않지만, 확실히 영향이 없진 않아. 외출도 어렵고, 방에만 있고, 방학도 길고... 친구들과 있는 단독방 최근 글들을 보면 죄다 자기가 발견한 새로운 버전의 테스트를 공유하느라 바빠.
- 주** 테스트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후에 서로 결과 공유하면서, '맞아맞아 너 그래', '너랑 딱이다', '우린 너무 투명하다' 등의 수다가 공식처럼 이어지지.
- 빨** 심심하고 친구들한테 말 걸고 싶을 때 운 띄우기 좋지. 스톱토크용 주제달까.
- 초** 사실, 자소서<sup>3)</sup> 쓸 때 막히는 문항이 자신의 장단점 쓰는 건데. 이제 우리는 자소서 말고 자소서<sup>4)</sup> 써야 취업이 될까 말까잖아. 그래서 그럴싸한 말 따오려고 테스트 결과 참고했어.

- 주** 인증 욕구도 있어. 심리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캡처해서 SNS에 올려서 인증하는 것까지 해야 돼. 인증 없는 테스트는 없다. 아예 인증하라고 해시태그까지 만들어주는 테스트도 있어.
- 노** 사실 결과가 나와 맞다 안 맞다는 중요하지 않아. 터무니없는 결과라도 웃기고 재밌으니가 공유하고, 인증하고, 더 퍼지는 것 같아.

### 이제는 높아진 MBTI

- 초** 생각해보면 내가 어릴 때 싸이월드에서 한창 100문 100답 했었어. 내가 스스로 100가지 질문에 답해보고, 답한 것을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했지. 싸이월드에서 유행처럼 퍼졌던 놀이였지.
- 주** 진짜 이제는 새로운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 기본적인 MBTI 테스트 말고도, 각색해서 더 재밌는 테스트들이 많이 나와. 전생집테스트, 대통령테스트, 반대 성향 검사. 나만의 꽃 테스트는 네이버 검색어 순위 1위까지 했다고.
- 빨** 요즘은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면, 팝업으로 내 유형을 분석해 주는데, 결과에 맞춰서 사야할 물건까지 추천해 주더라.
- 노** 예전 같으면, 뭔가 사라고 유도하는 것들이 다 광고 같아서 의심부터 들었는데,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이런저런 것 추천해줄 때는 참신하더라고. 나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소개해주는 것 같아서 '광고? 뭐 어때?'라는 생각이 들어. 재미 삼아 주고 받는 테스트가 자연스레 브랜드 홍보로 잘 되는 것 같아.
- 빨**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 가치도 알게 되고 이런 내 모습을 가볍게 주변에 공유할 수 있고, 그걸로 나를 좀 알아 주고 조심해 줬으면 하는 마음과 동시에 상대를 알고자 하는, MBTI는 새로운 연결고리의 방식 아닐까?

1) 인터넷 공간 속에서 돌고 도는 각종 '자투리 이미지 파일'의 통칭이고, 지금은 그냥 '사진' 자체를 아우르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  
 2) '화학'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단어 'chemistry'에서 비롯된 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서로 섞이는 반응이 좋은,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서로간의 어울림, 시너지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3) 자기 소개서의 줄임말 입시, 취업 혹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위해 이력서와 함께 필요한 필수 문서.  
 4) 자기 소개서와 '소셜'의 합성어. 자신을 돋보이게 쓴 과장된 자기 소개서를 뜻함.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취업 준비생들이 자기소개서에 실제 자신의 이야기만이 아닌, 기업의 눈에 잘 띄기 위해 없는 이야기까지 꾸며 쓰기 시작하면서 자조적 의미로 만들어진 슬픈 신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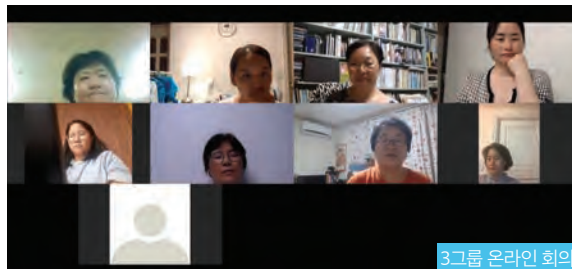
1그룹 온라인 회의



2그룹 온라인 회의

## 온보딩 프로젝트, YWCA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린다

이은영  
연합회 부회장



3그룹 온라인 회의



4그룹 온라인 회의

코로나19 이후, 국내 외는 물론 단체 내·외부 환경에서 시민단체인 YWCA는 커다란 변화와 마주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한국YWCA 실행위원 연구모임' 제안으로 시작하여 '온보딩 프로젝트(Onboarding Project)'로 모임 이름을 변경하고, 지난 6월 5일(금) 첫 번째 전체 온라인 미팅을 가졌다.

### 비대면의 일상화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요즘입니다. COVID-19의 영향으로 우리의 일상과 활동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역시 비대면(非對面) 방식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의 수업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대학교는 학기 내내 온라인강의로 진행되고 있고, 초·중·고도 일부 학년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사람들과 직접적인 만남 횟수가 줄어들고 외출이나 여행 빈도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과 비즈니스는 위축되고 사업의 방식도 비대면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룸은 매출이 유지되거나 크게 성장하는 반면 전통적인 유통 강자였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매출은 급감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비즈니스 지형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일부에서는 AI로 인한 인력감소보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방식의 확산으로 인한 인력감소가 더 크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 새로운 패러다임 비대면 방식과 YWCA

비대면의 확산은 시민사회 단체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회원들과의 만남과 활동, 시민 대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는 YWCA와 같은 기관에게 비대면 방식의 확산은 기존 활동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YWCA도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비대면 방식의 활동과 회원유지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회원관리, 활동방식,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

### 온보딩 프로젝트 그룹별 주제

YWCA 혁신기획팀		포스트코로나 YWCA 운동기획팀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지속가능한 YWCA를 위한 연합회 법인 역할 재정립, 지배구조의 변화 설계	지방분권 시대, YWCA 재구조화에 따른 YWCA 소통과 협력 구조	팬데믹 이후 생명위기, 경제위기, 비대면 사회에서의 시민, 시민단체 존재 의의와 참여	팬데믹 이후 가치의 변화와 새로운 일상 설계, 새로운 갈등·대립 양상과 대안

다. 이제 비대면 방식의 확산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인식이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기대가 사회적 감시로 연결되고 정책적으로도 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YWCA의 많은 부속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여 새로운 정책과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사회의 변화, 운동의 변화, 조직의 변화, 활동의 변화, 프로그램의 변화가 발맞추어 진행되어야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조직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온보딩 프로젝트의 시작

그간 연합회 실행위원회는 한국YWCA관련 주요한 안건에 대한 의결기능을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책기능과 의제개발 기능은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정책연구와 개발, 의제개발 등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고 제시하며 이에 맞는 조직적 구조와 운영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실행위원회는 그간의 수동적인 의결기능 중심에서 보다 정책연구와 개발 등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방향으로 운영방식의 변화를 고민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실행위원들

이 정책연구와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의 구조를 만들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하여 '온보딩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온보딩 프로젝트'로 YWCA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하며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총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YWCA의 구조변화, 운동의 방향, 앞으로의 사회변화와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실행위원들이 직접 공부해서 발제하고 논의하면서 YWCA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려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활동가로서 역할을 훈련하다

아마도 연말 즈음에는 그 결과물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실행위원의 역할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학습하고 개발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자원활동가로서 실행위원의 역할을 '활동가'보다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경향이 없지 않았는데, '온보딩 프로젝트'를 통해 이제 '활동가로서 실행위원의 역할'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WCA 실행위원이 YWCA의 운영과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면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우 상징적인 작업이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의 변화, 활동가로서 이사의 역할 재정립, YWCA가 100년을 바라보며 시도하는 조직 변화와 비전 설계의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합니다. '온보딩 프로젝트'의 성공을 같이 응원해 주세요!



### 고민을 나누고 싶다

교육에 참석하기 전 보슈(BOSHU) 권사랑, 서한나 공동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찾아봤다.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온 말은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젊은 층은 서울행을 꿈꾸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페미니즘에 별 관심이 없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의 개념조차 잘 모른다'라는 문장이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친구와 가족, 지인들에게 페미니즘에 대해 물어보았다. 다들 각자 생각과 느낌을 말했지만 분명하게 정의내리지 못했고, 군산YWCA에서 여성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나 역시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완벽히 정의할 수 없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지방'은 서울에 비해 페미니즘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관심이 있더라도 방법을 찾기가 어렵거나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페미니즘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한 지역의 여성운동 담당 활동가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답답하고 궁금했다. 같은 고민과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며 고민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강의에 참석했다.

###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외로움과 두려움 느낀다

보슈는 '보라'의 충청도 사투리로 본래 2014년 대전 청년들의 이야기와 이슈를 다루는 잡지였다. 2015년 강남역 사건 이후, 페미니즘을 공부하며 여성에 대한 관점 없이는 어떠한 삶도 이야기할 수 없었기에 '여성주의 잡지'로 변모했고, 이후 페미니즘 관점의 문화기획자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슈 공동대표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며 겪은 어려움과 즐거움을 풀어내며 강의를 듣는 활동가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 나아가 길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찍히는 수많은 낙인이 존재한다. 지방의 작은 도시인 군산의 경우는 더욱 힘든 상황이며,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낀다.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준다

권사랑 대표는 분노할 사건이 생기면 함께 분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에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강의를 들으며 지역 여성들을 위해 군산YWCA가 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여성들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여성

들과 함께하며 용기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다.

보슈는 대전에서 여성주의 글쓰기 강연, DJ파티, 여성축구·주짓수팀, 비혼 여성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많은 활동 중에서도 FC 우먼스플레이팅(여성축구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나눠준 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야구부에 지원하기 위해 손을 들자 같은 반 남학우들에게 "나가 뭘 할거냐, 치어리더냐?"라며 조롱을 들었다고 한다. 송구, 타격을 비롯해 모든 면에서 뒤쳐지지 않았지만 '여학생은 선수로 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시합에 출전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야구부 활동 내내 자신의 역할이 '서포터즈'였다고 느꼈던 그는 여성들로 구성된 축구팀 활동이 인상적이었고,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여성들도 운동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지역 사람들과 활동하며 교류를 넓힌다면 여성들이 긍정적이고 즐거운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얻고, 연대감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나만의 기준이 아닌 다양한 여성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생각해보고, 이들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여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지역에서 여성운동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서한나 대표가 언급했던 것처럼 YWCA 활동가들은 활동가인 동시에 프로그램 기획자이자, 기존과는 다른 '문화'의 생산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여성운동을 하려면 쉽지 않다. 지역마다 인구와 문화, 생활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서한나, 권사랑 공동대표(왼쪽부터)가 온라인 참가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군산과 같은 소도시는 여성이슈 자체에 스스로 관심을 갖고 찾아보거나 우연히 알게 되지 않는 한 접하기 쉽지 않다. 인구가 적고 보수적인 지역의 경우에는 여성이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큰 낙인이 될 수 있어 대면 홍보를 통해 접하기도 어렵고, 온라인상의 홍보도 주로 소규모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기에 주변에 연관된 이가 없으면 알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페미니즘 자체를 모르는데 갑자기 '관심'이 생기는 것은 더욱 어렵다. 페미니스트란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여성들과 지역 청년들이 여성이슈에 관심을 가지도록 인식개선이 먼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과 청년을 겨냥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해 단계적으로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 단계부터 탄탄한 기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이번 강의를 통해 한 지역의 청년여성으로서 답답하고 막연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군산 지역 여성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 '청년 여성과 지역, 그리고 페미니즘 연결하기'

한국YWCA연합회는 여성가족부 '2020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후원으로 다양한 지역여성운동을 배우고, 성평등운동에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자 '지역×여성=대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여성운동가들과 직간접적으로 만나고,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2020년 7월 15일(수) 군산 와이랩 제1구역에서 '청년 여성과 지역, 그리고 페미니즘 연결하기'를 주제로 모임을 개최했다. 대전 페미니스트 문화기획 그룹 'BOSHU'(보슈) 권사랑, 서한나 공동대표를 초청해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서울공화국'의 현실 속에서 청년 여성이자 페미니스트로 지역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는지를 들었다. 온라인으로도 동시 송출된 본 교육에는 현장 14명, 온라인 20명이 참석했다.



김은영  
연합회 국제협력부 간사


한국YWCA연합회가 주관하는 2020 아시아YWCA지역회의가 7월 2일(목) 온라인 화상회의 줌(ZOOM)을 통해 개최되었다. '포스트 코로나와 YWCA(YWCA movement & Post covid 19 era)'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 네팔, 대만, 미얀마,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인도,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홍콩 12개 국가에서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회의는 아시아YWCA 대표와 청년대표들이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연대와 협력을 만드는 소통의 자리로 추진되었다.

여는 기도(Felicia Fung 타이페이YWCA 회장), 환영사(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축사(Casey Harden 세계YWCA 사무총장), 참가자 환영(사회진행 김은영 국제협력부 간사),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YWCA' 주제강의(발표 한미미 세계YWCA부회장)로 1부를 진행했다. 특히 주제강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 의료진, 미디어, 시민사회의 대응과 역할'과 '한국YWCA의 코로나 대응 사례를 참가국들과 세계YWCA와 공유하며 현재 당면한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일상과 사회에서 YWCA운동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부에서는 국가별 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속 각국YWCA의 현황 및 코로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

졌다. 코로나19의 근원지로서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은 중국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빨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아시아 지역YWCA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지역사회 위생과 안전을 위해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속에서 취약계층인 아동들과 여성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아시아YWCA지역회의에 참석한 세계YWCA 사무총장 또한 아시아YWCA의 뜨거운 연대와 헌신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세계YWCA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해 YWCA세계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관련, 한반도 평화와 종전 캠페인에 한마음으로 지지를 보냈다. 2019년 6월 서울에서 2019 아시아YWCA지역회의를 개최한 지 벌써 1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다. 1년 사이 아시아지역 YWCA는 너무나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YWCA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YWCA 연대를 통해 함께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본 온라인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뜨겁게 느낄 수 있었음을 고백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다음 아시아 지역모임을 기약하며 닫는 기도(Draupati Rokaya 네팔YWCA사무총장)로 회의를 마쳤다. 

## 21세기 여성들은 어떤 '이야기'를 원할까

오수경  
청어람ARMC 대표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단어 중 하나는 '장례'가 아니었나 싶다. 지난 7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모친상은 장례 기간 내내 화제가 되었다. 여성 비서를 성폭행한 죄로 복역 중인 이에게 대통령의 이름이 박힌 조화가 전달되었고, 주요 정치인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누군가의 지적처럼 그 장례는 '안희정 권력의 쇼룸' 역할을 했다. 그렇게 전시된 풍경은 피해자 김지은 씨를 비롯한 동시대 여성들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위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논란이 가시지도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를 둘러싸고 또 한 번의 갈등을 겪어야 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운운하며 정작 살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상황에 할 말을 잃었다. 이 상황은 '21세기를 살고자 하는 동시대 여성들을 향한 '20세기적 폭력'에 가까웠다. 나에게 두 번의 장례는 실제적 의미를 넘어 20세기와 21세기를 구분 지을 상징적 사건으로 각인되었다. 이 소란스러운 과정을 경험하며 우리는 비로소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진입하고 있는 것인 지도 모른다.

### 어떤 장례식

또 하나의 '장례'를 이야기하고 싶다. 무려 21년이나 지속된 KBS2 <개그콘서트>(개콘)가 지난 6월 26일 방송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개그 프로그램의 폐지를 장례에 비유하는 게 어색하지만,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듯, 출연진은 마지막 회

한 코너를 아예 장례식장으로 설정했다. 모두의 시절에 청춘이 존재하듯, <개콘>이 빛나던 시절도 있었지만 <개콘>도 서서히 늙어갔고, 대중은 그 '늙음'을 견디지 못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콘>의 '늙음'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징후는 꽤 오래전부터 감지되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의 변화가 본격화되기도 했지만,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을 희화화하거나 여성이나 타인의 신체를 비하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걸 '개그'로 즐기길 거부하는 대중이 많아진 것이다. 한때 회자하던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라는 <개콘>의 유행어가 더는 통하지 않았다. 대중은 아무리 개그라도, 그런 이야기를 더는 원하지 않을 정도로 변화했다.

한 시대의 종말은 다른 이야기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개콘>의 마지막 회가 방영될 즈음, KBS1 <다큐인사이드>에서는 '개그우먼' 편을 방영했다. 예쁜 "개그우먼인데 왜 예쁜 척 해"라며 외면받고, 못 생기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똥생김' 자체를 개그 소재로 삼아야 했으며, 남성들이 만든 판 뒤에서 위태롭게 분투해야 했던 개그우먼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담아 대중의 호평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이들의 애환을 공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대중의 변화를 읽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지 의미를 정확하게 짚었다. "내가 잘해야 후배들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악착같이 버틴 이성미를 비롯한 선배 개그우먼

들, '비호감' 캐릭터에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박나래, 공중파 방송에서는 자신들을 불러주지 않아 스스로 '팬'을 만든 송은이·김숙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스스로 만든 길과 성취는 지금-여기 대중문화의 지향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 속 여성들의 얼굴이기도 하다.

### 변화는 어디서 어떻게 오는가

공중파를 비롯한 대중문화의 중심은 여전히 남성들일지 모른다. 20세기와 21세기 사이에는 분명 시차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대중은 그 시차를 빠르게 극복하며 미래로 질주한다. 이들은 더는 TV 리모컨을 손에 들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는다. TV가 트로트를 반복 재생하고, 이성에 중심 연애·가족 서사가 지긋지긋하게 우리 주변에 맴돌 때 '21세기 여성'들은 넷플릭스나 왓챠를 비롯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망명하고 있다. 그곳에서 안전하고 흥미로운 '여성 서사'를 발견하며 향유하고 있다. 송은이·김숙과 같이 이런 변화를 감지한 명민한 창작자들은 스스로 판을 벌여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를 개척하고 있다.

이들이 앞장서서 판을 벌인 효과는 절대 사소하지 않다. 박나래는 '스탠드업 코미디' 분야에 진출했고, 최근에는 국내 최초 여성 스탠드업 코미디 크루 '블러디 퍼니'가 탄생했다. 박미선도 개그우먼의 한계를 넘어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한 것도 모자라 현재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동료 개그맨이자 남편인 최왕락의 그늘에 가려졌던 팽현숙은 JTBC <1호가 될 순 없어>에서 요리사이자 개그우먼으로 재발견되고 있다. 그동안 대중문화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박원숙을 비롯한 황혼의 여성 배우들이 KBS2 <같이 삽시다>를 통해 주목받게 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배우선수 김연경, 전 국가대표 골프선수 박세리 등 '운동하는 언니들'이 예능의 새 강자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남성들의 무대로 여겨지던 힙합 분야에도 슬릭, 이영지 등 '갓깸'들이 등장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변화는 MBC <놀면 뭐 하나>의 '씩쓰리'의 등장과




출처: 텀블벅

국내 최초 여성 스탠드업 코미디크루 블러디퍼니 첫 정기공연 포스터

는 다른 흐름이다. '씩쓰리'가 기존 시스템을 등에 업고 과거를 반복하며 향수를 자극한 것이라면, 여성들이 만든 판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생성되고, 확장되고, 선순환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소위 '알탕 예능'이라 불리던 남성 중심 콘텐츠는 점점 대중의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여자들은 먼저 미래로 간다>의 공저자 윤이나는 대중문화의 변화를 이렇게 진단한다.

"이미 여성들은 밖에서 판을 만들고, 안에서 싸우고, 동료로서 팬으로서 여성으로서 서로를 지지하며 다른 것을 만들고,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게으르게 과거에 머물며 변하지 않는 남성들의 세계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온 여성들은, 과거에 머무는 이들의 눈에는 미래에 사는 것이겠지요. 이걸 어쩌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은 삶과 미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먼저 오는 것이니까요."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먼저 미래로 달려가는 이들에 의해 느리지만 확실하게 온다. 최근 경험한 세 번의 '장례'가 상징하듯 시대는 변하고, 대중의 지향도 바뀌고 있다. 이런 지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변화하기를 거부한다면 <개콘>처럼 늙고, 낡아 장례를 치를 날이 당겨질 수밖에 없다. 

## 연합회 소식

### 2020년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가 7월 30일(목) 오후 2시 온라인 화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 53개 회원YWCA 대표, 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실행위원 등을 포함 18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천위원·실행위원 인준, 명예연합위원 추대 및 군산YWCA 준회원 가입을 의결하고, 한국YWCA연합회 회장과 제1, 제2 부회장을 전자투표로 선출했다. 원영희 신임회장, 조은영 제1부회장, 이은영 제2부회장이 선출되었다. 총회 대표들은 한국YWCA 100주년 이후의 지속가능한 YWCA 기독교여성운동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P.6-14)

###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오리엔테이션



7월 30일 (목) 연합회 정기총회 이후 2020-2021 연합회 실행위원 대상의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새로 선출된 신임 회장단과 실행위원을 포함한 25명의 참가자가 실행위원 임무와 역할, 2020년도 연합회 사업계획, 하반기 주요 안전과 연합회의 핵심과제를 나누고 YWCA 혁신을 이끌 주체가 될 것을 다짐하였다.

### 2020 키다리학교 운영진(키쌤) 워크숍



7월 3일(금)부터 4일(토)까지 군산에서 20명의 키다리학교 운영진 '키쌤'이 모였다.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 청소년 활동의 고민을 나누고 '키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장과 만남을 통해 청소년의 지역활동을 이해하고, 키다리 약방 <오대근 간사> 프로그램으로 운영진의 역할과 고민을 공유했다. 퍼실리테이션 활동으로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강점 워크숍 '김대영 대표' 프로그램으로 각자가 가진 강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회는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활동할 '키쌤'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

로 지원할 예정이다.

### 제1, 2차 길위의 평화포럼



제1, 2차 길위의 평화포럼이 7월 9일(목), 23일(목)에 개최되었다. 제1차 포럼에는 임을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한반도 평화체제 가능성과 남북 관계 전망을 주제로, 제2차 포럼에는 양현태 교수(이화여대 기독교학부)가 근대 기독교사를 통해 보는 통일 한반도의 기독교 역할을 주제로 강의했다. '길위의 평화포럼'은, '남북여성이 함께 길을 걷는 여정 속에서 서로 배우며 평화를 이루어간다'는 의미로, 올해는 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제로, 회원YWCA 포럼단, 탈북여성들 4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총 4회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P.18-21)

### WCC 세계기독교여성순례팀방문 프로그램(PTV) 참여



연합회는 7월 14일(화) 국내 여성 단체들의 한국전쟁 이후 평화와 인권 회복 활동을 탐방하는 '세계기독교여성순례팀 방문(Pilgrim Team Visit)' 온라인 행사에 함께하였다. 이은영 연합회 부회장이 축첩페이지에서 미투로 이어지는 YWCA 여성권리운동, 직업개발과 훈련, 탈핵생명운동, 평화통일운동 등에 대해 사진 설명과 함께 발제했으며, 최수산나 부장이 세계YWCA 결의문과 한반도중전평화캠페인에 대해 설명하며 YWCA 평화운동 방향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 청년 여성과 지역, 그리고 페미니즘 연결하기



연합회는 7월 15일(수) 군산 와이랩 제1구역에서 '청년 여성과 지역, 그리고 페미니즘 연결하기'를 주제로 모임을 개최했다. 다양한 지역여성운동을 배우고, 성평등 운동에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자 '지역x여성=대세'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대전 페미니스트 문화기획 그룹 'BOSHU'(보

수) 권사랑, 서한나 공동대표를 초청해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서울공화국'의 현실 속에서 청년 여성이자 페미니스트로 지역에서 어떻게 '잘' 살아내고, 살아내고 있는지를 들었다. 온라인으로도 동시 송출된 본 교육에는 현장 14명, 온라인 20명이 참석했다. 본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2020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P.38-39)

####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발족



연합회는 7월 27일(월) 광화문 광장에서 300여 개 국내외 단체들과 더불어 한반도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1억 명의 서명을 받는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 발족식을 가졌다. 이를 위해 한국YWCA는 55주간 동안 'YWCA 릴레이평화기도운동'과 함께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YWCA 피스챌린지'를 집중 전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P.24-25)



#### <돼지다운 돼지> 번역 출간

CR번역연구소(원영희·진실로)가 옮긴 책 <돼지다운 돼지>(홍성사, 2020. 4)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농장동물은 단순히 안심이나 갈비 고기가 아니라 함께 지구를 회복하는 동업자이며, 서로에게 주어진 선물로, 인간의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묻는다.

#### YWCA 1922 장학금 모금현황

(2020. 6. 1 ~ 2020. 7. 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이희정, 임정민, 김병찬, 김은영, 박미라, 이정하, 전진영, 한솔, 나순복, 민경준, 민경찬, 민승기, 임진영, 박찬주, 신윤용, 유도희, 유영애, 정선덕, 황혜진, 김양선, 성주향, 조정현	890,000
회원YWCA	제천YWCA, 동해YWCA, 양산YWCA, 대전YWCA, 인천YWCA, 광주YWCA, 서울YWCA, 청주YWCA	2,920,000
기관	장선천안장학금, 강남위원회, 봉천복지관	180,000
6월~7월 모금액		3,990,000
누계		10,558,000

####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20. 6. 1 ~ 2020. 7. 31)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기부 (2020. 6. 1 ~ 2020. 7. 31)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청주Y), 광지역,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복례,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나차더르즈 돌람수렌,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윤희,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임희, 박지영, 박진화, 박효정,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혜진,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 빈, 유성희, 유 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민정,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주영, 이지윤, 이찬형, 이찬진, 이행자,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세영,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천유란, 최수신나,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3,450,000
개인 기부	김난주	100,000
회원YWCA	창원Y	15,000
협력 교회	한양대학교회, 황간임마누엘교회, 홍성성결교회유치부, 약전평강교회	458,610
합계		4,023,610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한국YWCA는 고통 속의 피해자와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범죄 의혹을 뒤로 하고 죽음으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가 행한 수많은 업적들과 죽음에 대한 예의라는 당위 속에서, 성추행 의혹을 밝히려 말하는 것은 '에도'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야 했다. 더구나 피해자가 성추행 고소를 한 다음날 박 전시장이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사과도 없이 목숨을 끊음으로서, 이 사건이 즉시 '공소권 없음'으로 발표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서울시를 성 평등 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하더라도 그의 성추행 의혹을 죽음으로 덮을 수는 없다. 온갖 위협과 중상모략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피해자의 고통스런 목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 장례 이후 들려온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는 크나큰 놀라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최초의 성희롱 사건을 변론하고 젠더특보를 설치하며 인권조례 제정 등에 애를 쓴 그가 위계적 관계 위에서 4년 넘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괴롭혀왔다는 사실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우리 사회 성차별 문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서울시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호소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고 목살해 왔으며, 시장실과 비서실을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 환경으로 만들어왔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박 전시장 개인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에 만연해 있는 조직적인 성차별, 성희롱 관행으로 기인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지금 목도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일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된 이들의 책임을 묻는 일이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데도 목살해버린 책임과,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에게 유출된 경위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사회에 뿌리깊은 성차별 관행과 여성혐오적 문화를 근절하여 또 다시 이러한 성폭력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고 책임있는 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4년이나 참고 말하지 않은 게 수상하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씌우고, '당당하면 얼굴 보이고 나서라'는 식의 2차 가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무고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들 때문에 겪는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에 함께 눈물 흘림으로써 참여하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고 마침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굳건히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

한국YWCA연합회는 전국 53개 회원YWCA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을 감추려 하지 말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라.
-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규명을 위한 공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확인되지 않은 온갖 억측과 중상모략, 가해 위협 등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멈추며 이를 조장하는 언론은 각성하고 자중하라.

2020. 7. 17  
(사) 한국YWCA연합회

경기지역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For Our Future - 탈출! 기후위기!



고양YWCA는 올해 '기후위기'를 주제로 2020년 카디리학교를 운영하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따른 문제들을 알아보고 지구를 생각하는 청소년시민활동을 양성한다. 지난 5월 9일 (토)부터 22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기후위기 강의를 듣고, 조별 활동, 캠페인 준비 등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발성을 키우는 카디리학교를 통해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을 기대한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남양주YWCA는 6월 16일(화)부터 26일(금)까지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으로 신입경비원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총 14명이 참석하여 이론과 실제 등 총 50시간을 이수해 참가자 모두 경비 이수증을 취득했다. 남양주YWCA 취업교육으로 취업한 분들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부천YWCA** 이현순 사무총장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 나눔

부천YWCA는 7월 7일(화) 노인참여나눔터 어르신들에게 여름철 건강돌봄을 위해 다양한 반찬과 다과를 대접했다. 이후에도 삼계탕, 냉면, 물김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무



더위로 위축되기 쉬운 계절에 다양한 음식으로 건강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수원YWCA** 강은진 주임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먹거리 및 생필품 전달



수원YWCA는 6월 말까지 경기공동모금회와 '사랑가득찬 희망꾸러미'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안부 확인을 위해 매주 1회, 밀반찬과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코로나19로 대다수 복지시설의 휴관이 연장되면서 어르신들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배경에서다. 수원YWCA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산YWCA** 홍지인 팀장  
'어린이가 만드는 걱정기술 꿈의 학교' 개교식



안산YWCA는 7월 4일(토) 안산Y 회관에서 '어린이가 만드는 걱정기술 꿈의 학교' 개교식을 진행했다. 걱정기술 꿈의 학교는 어린이들이 태양광, LED 등을 적용한 다양한 걱정기술을 배우고, 워크숍을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함과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주최하고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YWCA가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12월

까지 진행된다.

**안양YWCA** 김희정 팀장  
'지구를 살리는 작은 한걸음-플라스틱 Bye-bye!'



안양YWCA는 7월 7일(화) '지구를 살리는 작은 한걸음-플라스틱 Bye-bye!' 교육을 진행했다. 석수 마을 에너지 상담사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과 비닐쓰레기 문제 해결, 자원 절약과 재활용 등과 관련한 교육을 했다. 이어 비닐랩 대체품인 친환경 밀랍랩 만들기 체험을 통해 일상의 작은 변화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다.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시민안전강사 양성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의정부YWCA는 6월 1일(월)부터 12일(금)까지 시민안전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시민 23명이 참가한 가운데 '안전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공동체 문화구축이 중요함을 공유했다. 수료생들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안전교실'을 운영하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다.

**하남YWCA** 김상미 간사  
아기돌보미 양성 교육



하남YWCA는 6월 22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아기돌보미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전문강사가 영유아질병과 신체발달, 베이비 마사지 등 돌봄서비스를 위한 기본소양교육과 영양관리, 부모교육 및 아동상담지도 등 이론과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영유아를 건강하게 잘 돌볼 수 있도록 총 40시간의 교육을 진행했다.

동부지역

**거제YWCA** 박숙혜 간사  
거제씨월드 폐쇄 촉구 기자회견



거제YWCA는 7월 3일(금) 거제시의회 앞에서 18개의 거제지역 시민단체 및 전국동물보호활동 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씨월드 폐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거제씨월드는 벨루가를 서평보드처럼 타고, 돌고래와의 키스타임 등 살아있는 생명을 관광상품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이며 생명을 착취하는 행위라고 규정짓고 거제시청이 거제씨월드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제3회 아나바다 큰장터



김해YWCA는 6월 27일(토) 회관 앞에서 제3회 아나바다 큰장터를 개최했다. 아나바다 큰 장터는 지역 내 자원 절약으로 환

## 회원YWCA 소식

경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농산물과 물품 판매를 통해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 안디옥교회 협력으로 교회 마당까지 장터를 운영하며 장바구니 만들기 체험도 진행하고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자원봉사로 혈압·혈당 무료체크, EM 활성액 무료배포 등을 실시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9월과 10월에 걸쳐 아나바다 큰 장터를 개최할 예정이다.

### 대구YWCA

김보현 간사

#### 이사·위원 통합 연구모임



대구YWCA는 6월 11일(목) 평생교육기관인 (사)에제르(이사장: 최정선 회장)에서 이사·위원 통합 연구모임과 6월 이사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 꽃들이 즐비한 김천 (사)에제르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며, 최정선 회장이 점심 및 프로그램을 준비해 증경회장·이사·위원·실무활동가들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마산YWCA

강현영 간사

#### 창립 54주년 감사예배



마산YWCA는 7월 14일(화) 창립 54주년 감사예배를 진행했다. 이사진의 특별찬양,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제목의 말씀, 김경애 증경회장의 기도 순서가 있었다. 54년 간 마산YWCA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했다.

### 부산YWCA

박보람 간사

#### 시민 교육·체험 '우리동네, 상상은 현실이 된다'



부산YWCA는 7월 1일(수)부터 23일(목)까지 매주 수요일 4회, 목요일 4회 총 8일간 29명의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상상은 현실이 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도시조망경관 속 우리의 권리, 미세먼지 속 숨 쉴 권리, 기후변화 속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우리동네 소통과 갈등관리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으로 살고 싶은 동네 만들기를 디자인했다. 또한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를 방문해 텃밭채소를 활용한 자립적 먹거리 교육과 유기농 허브 샵 푸 만들기 해보았다.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육구발전 및 해결을 위한 시민 교육·체험을 통하여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건설에 한 걸음 다가갔다.

### 사천YWCA

정희경 간사

#### 양성평등 전문활동가 양성교육



사천YWCA는 6월 10일(수)부터 7월 1일(수)까지 총 7회 과정으로 양성평등 전문활동가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여성주의의 관점, 장의력을 높여주는 평등교육의 실제 및 발표 등을 진행했다. 이후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 울산YWCA

김예린 간사

#### 어린이 환경지기단

울산YWCA 어린이 환경지기단이 7월 18일(토) 강당에서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초등학생 40명으로 구성된 환경지기단은 어린이들이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진주YWCA

김태진 팀장

#### 이민자네트워크 프로그램



진주YWCA는 7월 9일(목), 22일(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공동으로 지역 내 이주민 20여 명과 함께 이민자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원한 여름나기를 주제로 가방 만들기, 부채 만들기, 천연모기 퇴치제와 천연큐브 방향제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이민자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민자뿐 아니라 기관 간 교류확대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 진해YWCA

김미영 부장

#### 진해Y-틴 발대식



진해YWCA는 7월 11일(토) 청소년동아리 진해Y-틴 발대식을 가졌다. 최철엽 강사의 소중한 물, 낙동강이야기를 주제로 환경특강을 진행하고, 참가자 소개와 활동 방향과 의견 나눔 시간을 가졌다. 진해Y-틴은 환경정화 활동, 센터 방문 봉사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독서, 댄스, 악기연주와 같은 소그룹 자체활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창원YWCA

김신혜 간사

#### 병원아동돌봄관리사 양성교육



창원YWCA는 6월 1일(월)부터 7월 8일(수)까지 '병원아동돌봄관리사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영유아기·학령기 아동간병돌봄 서비스 이해, 아동심리, 연령별 그림책놀이 등 104시간의 교육을 통 총 29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창원시에서 주관하는 '병원아동돌봄서비스의 인력'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 통영YWCA

변은실 팀장

#### '배우고 체험하는 에코스쿨' 환경캠페인



통영YWCA는 6월 30일(화)부터 7월 2일(목)까지 통영시여성회관 앞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에코스쿨' 환경캠페인으로 업사이클링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기후변화와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제로 양말목을 활용한 접반침대 만들기, 커피 방향제 만들기, EM 섬유유연제 만들기, 코로나 극복 손소독제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통영YWCA는 환경교육 및 환경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통영시민들이 생활 속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힘줄 것이다.

### 포항YWCA

김민경 간사

#### 포스코 '사랑의 공부방' 쿠킹클래스

포항YWCA는 7월 21일(화), 22일(수), 28일(화), 29일(수) 4회에 걸쳐 포스코 학습지원 봉사단인 '사랑의 공부방' 프로그램으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위한 쿠킹클래스 마카롱 만들기 수

## 회원YWCA 소식



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을 진행했다. 한울지역아동센터의 8개소 아동 및 청소년 79명과 함께 포스코 학습지원 봉사단 60명이 마카롱을 만들면서 더 가까워지고 소

## 북부지역

### 강릉YWCA

이신애 부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강릉YWCA는 6월 15(월)부터 24(수)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60시간 교육 이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산모와 신생아의 특징을 이해하고, 돌봄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실행방법을 습득하도록 교육했다. 교육을 통하여 건강관리사 표준활동 체계를 이해하고 올바른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배움의 시간을 만들었다.

### 동해YWCA

전민지 팀장

#### 동해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동해YWCA는 7월 1일(수) 회관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박경옥 회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은섭 사무국장(한국청소년육성회)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작년 활동을 돌아보며 올해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 서울YWCA

성지희 팀장

#### 포장재 재질 개선 캠페인 선언식



서울YWCA는 7월 23일(목) 기업과 함께하는 포장재 재질 개선 캠페인 추진 선언식을 열었다. 이유림 회장은 한국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145.9kg으로 전 세계 1위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플라스틱 소비행태 전환이 절실하며, 기업은 생산·유통의 영역에서, 시민은 소비와 생활의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선언식에서는 포장재 재질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12개 기업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플라스틱 다운을 실천하기로 선언했다.

### 속초YWCA

장은아 간사

#### 이사교육



속초YWCA는 7월 7일(화) 이사교육을 진행했다. 이리자 회장을 비롯한 이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형남 협력위원(전주YWCA경정회장), 박은실 연합회 국장이 강사로 나서 '회원YWCA 현장 준칙과 이사회 운영', 'YWCA이사회 운영 실제와 이사의 역할'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 인천YWCA

박희은 간사

#### 온라인 Y-틴&대학·청년Y 인준식

인천YWCA는 7월 4일(토) 온라인 Y-틴&대학·청년Y 인준식을 진행했다. 2020년 새롭게 선출된 Y-틴 임원, 대학·청년Y 임원단



이 회관에 모여 촬영하는 가운데, 예배특송, 선서문 낭독, 임명장 전달, 축하공연 등을 진행했다. 영상은 인천YWCA 유튜브를 통해 방송해 약 100여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했고, 조회수 600명 이상을 기록했다.

### 춘천YWCA

허현주 간사

#### 찾아가는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



춘천YWCA는 5월부터 11월까지 양성평등사업으로 춘천시 관내 유·아동 시설 10개 기관에 '찾아가는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재미있는 인형극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건강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보호할 수 있는 관점을 갖도록 돕고 있다.

## 서부지역

### 광양YWCA

허수진 팀장

#### 준회원 감사 후속 이사교육



광양YWCA는 7월 14일(화) 회관에서 준회원 감사 후속 이사교육(4회차)을 진행했다. 이해경 협력위원이 경영가이드라인 자가평가를 주제로 교육했으며, 총 4회 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원활동가들에게 수료증 전달식도 가졌다.

### 광주YWCA

배민희 국장

#### 청소년재능지원 선정위원회 개최



광주YWCA는 6월 29일(월) 광주WCA 회관에서 삼성전자(주)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재능지원 Dream Come True' 선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지역 예체능 전공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청소년들은 매년 총 3백2십만 원씩 3년 동안 총 9백6십만 원을 지원받는다. 학업 의지, 재능 향상 여부 등을 평가하여 총 16명이 선정되었다. 각 분야에서 본인이 가진 재능을 펼치며 꿈을 이루어나가길 기대한다.

### 군산YWCA

신하은 간사

#### 이사교육



군산YWCA는 6월 30일(화)부터 7월 21일(화)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이사교육을 진행했다. YWCA 목적문 이해(1차), YWCA 역사를 통한 운동 이해(2차), 사회 속의 YWCA 활동가 역할(3차), YWCA 이해하기(4차)를 주제로 임원회가 주축이 되어 직접 강사로 나서 이사교육을 진행했다. 15명 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김형남 지도위원이 함께 참석해 질의응답에 함께 했다.

### 남원YWCA

임진아 간사

#### 찾아가는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남원YWCA 통합상담소는 6월 30일(화), 7월 2일(목), 3일(금)에 이백초등학교에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것으로 내 몸의 소중함을 알리고 타

## 회원YWCA 소식



인의 몸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 목포YWCA

곽수현 국장

#### 법인준비 이사·직원 워크숍



목포YWCA는 6월 8일(월) 회관에서 자원·실무활동가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법인준비를 위한 이사·직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박동순 연합회 국장 외 3명이 강사로 '회원Y 재구조화 필요성 및 방향,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법인이사의 책무성, 회원Y별 지역법인 설립단계별 세부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목포YWCA는 지속가능한 YWCA를 위해 독립된 지역법인 전환으로 책임성, 자율성, 전문성을 갖추어 지역민들과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한다.

### 서귀포YWCA

김수진 팀장

#### 서귀포시 건강 쿠킹버스 식생활 교육사업 출범식 개최



서귀포YWCA는 건강 쿠킹버스 식생활 교육사업 출범식을 6월 18일(목) 서귀포월드컵경기장 행사장에서 개최했다.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인 건강쿠킹버스 식생활 교육사업은 마을이나 학교, 기관 등을 찾아가 아동과 성인을 위한 식생활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특수차량을 제작해 30인 수용 가능한 조리실습 시설 구비는 물론 리프트도 갖추어져 있다.

### 순천YWCA

신정옥 간사

####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교육



순천YWCA는 6월 8일(월)부터 18일(목)까지 11일간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론과 실습 교육 60시간을 진행했으며 총 14명이 수료했다. 이후 산후 회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산모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여수YWCA

김예랑 간사

#### 오월여성다큐멘터리 상영회



여수YWCA는 6월 12일(금) 5.18광주민중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오월여성다큐멘터리 '외롭고 높고 쓸쓸한' 상영회를 열었다. 이 영화는 여성의 시선에서 5.18 여성 시민군들의 활약을 조명하고, 현재도 여성운동가로 활동 중인 이들의 삶을 담은 다큐 영화다. 영화 상영 후 김경자 감독과 영화 출연자와의 대화 시간도 가졌다.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주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가려진 여성 시민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전주YWCA

김은진 국장

#### '손으로 전하는 사랑' 면 마스크 전달

전주YWCA는 6월 19일(금) 자원활동가와 회원 45명이 함께 참여 면 마스크 5백 장을 직접 제작했다. 면 마스크 제작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데 의미를 뒀다. 이날 정성껏 만든 면 마스크



는 돌봄노동자·북한이탈주민·학교밖청소년 대표에게 직접 전달됐다.

### 익산YWCA

김다영 간사

#### '덕분에챌린지' 릴레이



익산YWCA는 7월 17일(금) 익산공공미디어센터의 지목을 받아 의료진, 소방, 자원봉사자 및 방역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담은 '덕분에챌린지'에 회장, 부회장 및 이사진들이 동참했다. 익산YWCA도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며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한다.

### 제주YWCA

박슬기 간사

#### 평화아카데미 개최



제주YWCA는 7월 9일(목) 평화아카데미 1강을 진행했다. '울지 마 톤즈' 영화 상영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온전히 삶을 헌신한故이태석 신부의 삶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이웃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품는 시간을 가졌다.

## 중부지역

### 논산YWCA

조은숙 주임

#### 종이그림자극 에너지교육



논산YWCA는 6월 18일(목), 19일(금), 29일(월)에 썬밸유치원과 생명숲돌봄센터에서 135명의 어린이에게 종이그림자극 에너지 교육을 실시했다. '북극곰의 눈물-지구가 아파요'(강사 윤연식)를 주제로 종이그림자극을 통해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고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하반기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 대전YWCA

안소진 간사

#### Y-틴, 대학·청년Y 인준식



대전YWCA는 7월 18일(토) Y-틴, 대학·청년Y 동아리 인준식을 진행하였다. 대전지역의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30명 이내의 인원으로 3회차로 나누어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에는 Y-틴 10개, 대학·청년Y 5개 동아리 총 120명의 회원들이 인준받았으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은 온라인 중계를 통해 대전YWCA 청소년운동의 시작을 함께했다.

### 세종YWCA

양유정 간사

#### 세종시자원봉사센터 고별식



세종YWCA는 6월 30일(목) 회관에서 세종시자원봉사센터

## 회원YWCA 소식

위탁 운영종료에 따른 고별감사에배와 고별식을 진행했다. 1부 예배에서 이준호 목사(송덕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2부에서 고별 및 퇴임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세종시자원봉사센터는 2003년 1월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7년 6개월 동안 세종YWCA가 세종시로부터 위탁받아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고, 7월 1일자로 사단법인 세종특별시에 직접 운영을 한다.

### 제천YWCA

김미경 팀장

#### 찾아가는 착한 기업가 체험



제천YWCA는 7월 27일(월)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다양한 체험 교육이 어려운 수산초·중학교 초등 6학년 28명을 대상으로 생산, 판매, 소비, 은행체험, 기부 활동을 통한 '찾아가는 착한 기업가 체험'을 진행했다. 자신이 기업가가 되어 물품을 만들어 판매해보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소비와 기부를 통해 경제 원리와 착한 소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돈의 가치 및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의 필요성,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실천을 다짐했다.

### 천안YWCA

곽효정 간사

#### 청소년에코캠페인



천안YWCA는 6월 27일(토) 'EM이 환경을 살린다'는 주제로 청소년에코캠페인을 진행했다. EM 활용 방안과 EM 용액 만들기 체험했다. 그리고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교육(보호/근로권익)도 함께 진행했다. 천안YWCA는 청소년에코캠페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

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청주YWCA

한기연 간사

#### 청주YWCA '에너지시민센터 AtoZ(아토즈)' 개소식



청주YWCA는 지역 에너지전환과 자립을 위한 실천을 위해 6월 19일(금) '에너지시민센터 AtoZ(아토즈)'를 개소했다. 아토즈는 '동근해로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전환을 실행에 옮겨보기 위해 마련된 장소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은희 회장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역, 청주시 신재생에너지팀, 녹색청주협의회, (사)사람과경제 등 후원과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주YWCA는 앞으로 아토저 이외에도 에너지전환을 실험하는 마을리빙랩, 찾아가는 에너지전환 학교,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인식조사 등의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충주YWCA

이예림 간사

#### '꿈꾸는 실버공방' 작품전시회



충주YWCA는 7월 17일(금) 회관에서 프로그램 참여자와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꿈꾸는 실버공방'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6월 25일(목)부터 매주 2회(목,금)씩 총 6회기 동안 60세 이상의 지역 어르신들 20여 명이 '꿈꾸는 실버공방'을 운영해 파우치, 다포, 클레이 작품 등을 만들었다. '꿈꾸는 실버공방'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년의 삶을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진행했다.

20살부터 누구나 20년에도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누리세요

※ 전 국민의 **30%**가 건강검진으로 질환을 발견합니다.

#### 20살부터 2년에 한번씩 누구나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 일반건강검진 : 고혈압, 당뇨병, 비만, 우울증 등
- 암검진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영유아건강검진(4~7개월), 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9~18세)

#### 어디서?

지정된 검진기관 어디서나 가능  
※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미리 검진 받으세요.

#### 어떻게?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끝!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건강인홈페이지(hi.nhis.or.kr) 또는 ☎1577-1000